

사회 >> 3면

디지털 정부의 아킬레스건... 국가 전산망은 왜 멈췄나

기획 >> 6면

자율전공제도의 '명과 암'

현장르포 >> 7면

달은 여전히 그 자리에... 현장에서 마주한 추석의 얼굴

제594호

2025년 11월 4일(화)

2025학년도 2차 전체학생대표자회의, 학생 의견 청취와 보고 이뤄져



공약 보고 - 교내 휴게 공간 마련
 - 신입생 3층 스콘라운지
 - MD카페 옆 강의실형 휴게실

지난 10월 13일 오후 6시 30분, 서경대학교 문예관 문예홀에서 2025학년도 제2차 전체학생대표자회의가 열렸다. 이번 회의에는 총학생회(이하 한빛)를 비롯해 단과대학 및 학과 학생대표들이 참석해 학교 현안과 학생 자치 관련 주요 사안을 공유했다.

회의는 △결산 보고 △활동 보고 △공약 보고 △1학기 전학대회 질문 사후 보고 △사전 질문 △현장 질문 순으로 진행됐다.

먼저 결산 보고에서는 총수입 113,228,075원, 총지출 107,384,552원으로, 잔액은 5,844,320원이었다.

예산은 학생 복지 및 행사 운영 등 다양한 분야에 사용됐으며, 회계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모든 내역을 공개했다.

활동 보고에서는 지난 학기 동안 진행된 주요 행사가 소개됐다. 대중제를 비롯해 '서경하여로스 : 각골 난방', 간식 지원, 제주도 플로깅, 청아제전, 후기 졸업식 등 학생 참여형 프로그램이 활발히 운영됐다.

이어진 공약 보고에서는 학생 복지 향상을 위한 여러 약속의 이행 상황이 발표됐다. 한림관 3층 스콘라운지와 MD카페 옆 강의실형 휴게실 등 교내 휴게 공간이 새롭게 조성됐

으며, 우리대학 학교 점퍼 제작과 전체 학생 대상 MT도 추진 완료됐다.

1학기 전학대회 질문 사후 보고에서는 버스 과밀화 문제, 일체형 책상 교체, 학식 공지, 언덕 위 휴게시설 확충, 홈페이지 리뉴얼, 미래융합대학 과방 조성, 청문관 환경 개선 등 다양한 안건이 다뤄졌다.

버스 과밀화 문제는 여전히 해결이 쉽지 않다는 입장이었다. 학교는 지자체와 버스 업체 등 여러 기관과의 협의의 중이지만, 구조적·기술적 한계가 있어 즉각적인 개선이 어렵다고 밝혔다.

일체형 책상은 해인관부터 분리형

책상으로 점차 교체 중이다. 다만 기존 책상 처리에 시간이 소요돼 순차적으로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학식 공지는 현재 모든 메뉴를 사전에 안내 중이며, 언덕 위 휴게시설도 추가 확충이 완료됐다.

홈페이지 리뉴얼은 학교 측에서도 인지하고 있으며, 시스템 개선을 위해 지속적인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미래융합대학 과방과 청문관은 동계방학 중 공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진행된 현장 질문에서는 교내 시설 수리 진행 상황이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일부 건물의 누수 및 파손 문제의 보수 진행도에 대한

질문이 이어졌으며, 한빛은 "해당 문제는 학교 측에 빠르게 건의했으며, 오는 동계방학 중 공사를 마칠 예정"이라고 답했다.

이번 회의를 통해 서경대학교 학생자치기구는 1년의 중간 결산과 함께 각종 공약 이행 상황을 점검하며, 학생들의 실질적인 불편 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개선 방향을 제시했다.

윤정현 기자
 (stark1017@skuniv.ac.kr)

동문과 함께하는 진로취업박람회... 2025 SKU JOB FIESTA 성료



지난 9월 23일 고용노동부와 서울특별시의 후원과 진로취업처 대학일자리플러스본부, 산학협력단, 서경SW아카데미 사업단 주관으로 진로취업박람회인 '2025 SKU JOB FIESTA(이하 서경 잡 페스타)'가 성황리에 개최됐다.

'서경 잡 페스타'는 유담관 5층과 1층에서 10시부터 5시까지 진행됐

다. 박람회는 △직무 ZONE △채용 ZONE △홍보 ZONE △이벤트 ZONE 4개 구역으로 나뉘었다.

'직무 ZONE'에서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네이버 등 기업에 재직 중인 동문 선배와의 1대1 컨설팅이 진행됐다. 일반적인 1대1 컨설팅이 아니라, 먼저 사회에 진출한 동문 선배와의 대화를 통해 더 와닿는 취업 소식과 직무에 관련된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었다.

한편 코워킹-스페이스2에는 '채용 ZONE'이 마련돼 디포커스(주), 어니언소프트웨어, ㈜디칼파크 등 기업이 참여해 채용 정보 설명과 현장 채용을 진행했다.

'홍보 ZONE'에선 서울북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 캠퍼스타운조성사업단, 창의산학교육원 등이 참여해 취업과 관련된 지원제도와 프로그램을 소개하는 부스를 운영했고, 진로취업처에서 운영하는 부스 같은 경

우 이력서·자기소개서·면접 컨설팅을 진행해 취업을 준비하는 재학생들의 만족을 샀다.

'이벤트 ZONE'에선 △퍼스널 컬러 진단 △이미지 메이크업 △이력서 사진 촬영 △취업 타로 △키링 만들기 △푸드코트 부스를 운영해 단순한 정보만을 얻는 것이 아닌 체면 또한 겸비한 박람회를 완성했다.

또한 다양한 경품을 증정해 재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었다. 박람회 시작 전 입구에서 대기해 경품을 받을 수 있는 오픈 런 이벤트와 부스 체험에 참여해 스탬프를 모으면 경품을 주는 스탬프 행사가 진행됐다. 이번만 아닌 롤렛 이벤트를 진행해 다양한 경품을 제공해 박람회에 열기를 띄웠다.

이번 박람회는 "단순히 정보만을 얻는 것이 아닌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어 좋았다", "동문 선배와의 컨설팅을 통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

는 조언을 들 수 있었다" 등 재학생들의 긍정적인 반응이 있었다.

이날 '서경 잡 페스타'에는 약 1,300명의 재학생이 참여한 가운데 많은 관심 속에서 마무리됐다. 학교 동문과의 1대1 컨설팅을 통해 재학생들은 더 와닿는 정보를 얻고, 단순 취업 관련 정보 외에도 퍼스널 컬러 진단, 이미지 메이크업 등과 같은 체험형 부스를 즐길 수 있었다. 이외에도 먹거리와 경품 증정 이벤트 등 우리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끌어낸 다양한 행사도 진행되며, 박람회는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이요한 수습기자
 (yohan2006lee@skuniv.ac.kr)

사 령

11월 4일자로 아래 학우를 임·면합니다.

- ▶면 부편집장 윤정현 (전자 22)
- ▶임 부편집장 김호성 (미용 25)

10월은 학술정보관 교육으로 마무리!

학술정보관 10월 온라인 교육 안내

본교 학술정보관에서 10월 한 달간 온라인 특강을 진행했다. 이번 특강은 학술정보관에서 제공하는 전자저널 데이터베이스(DB)인 DBpia에서 담당했다. 모든 강의는 줌(zoom)을 활용하여 이뤄졌다.

특강은 △AI 프롬프트 활용법 △사이버지 기초+심화 △DBpia AI 활용 가이드 △특별한 대학 생활을 위한 생성형 AI 활용 가이드로 총 4가지다.

'AI 프롬프트 활용법 강의'는 10월 1일 10시부터 11시 30분까지 운영됐다. 해당 강의는 전공 상관없이 AI를 실용적으로 활용하는 것을 목표로 교육했다. 더불어, AI를 적절하게 활용하기 위해 거쳐야 하는 프롬프트 작성에 대한 팁을 제공했다.

'사이버지 기초+심화 강의'는 10월 15일과 10월 22일 10시부터 11시 30분까지 두 차례 걸쳐 진행됐다. 해당 강의는 '인용이 쉬워지

는 참고문헌 관리 프로그램'을 슬로건으로 내세웠다. 대학생들이 리포트를 작성할 때 필요한 연구 윤리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DBpia AI 활용 가이드 강의'도 10월 21일 10시부터 11시, 10월 29일 14시부터 15시까지 두 차례 운영됐다. 본 강의는 AI가 일상이 된 현대사회에서 이를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강의했다.

'특별한 대학 생활을 위한 생성형 AI 활용 가이드'는 10월 29일 10시부터 11시 30분까지 진행됐다. 이 강의는 학생 신분으로 누릴 수 있는 다양한 AI 혜택과 언어모델(LLM)을 활용해 논문을 살펴보는 것에 대해 심도 있게 다뤘다.

교육과 관련한 유의사항도 존재했다. 신청자가 입력한 개인정보는 참석자 파악 용도로 각 소속기관에 제공될 수 있다. 다만, 수집 정보는

10월 전체 교육 종료 후 1개월 보관 후 완전히 폐기된다.

또한, 신청 시 개인정보(이메일, 성함)를 정확히 입력해야 출석이 인정됐다. 부득이한 이유로 교육 참석이 어렵더라도 수강 취소는 하지 않아도 됐다.

AI 프롬프트 활용법 강의를 수강한 미래융합학부 1A 학우는 "GPT와 같은 AI를 평소 잘 활용한다"며 "커뮤니케이션 등 학교 교양 수업에서 AI 활용법 및 윤리에 대해 배운 적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교육을 통해 AI 활용법에 대해 심도 있고 실용적으로 활용할 수 있어 의미 있는 강의였다"는 견해를 밝혔다.

김호성 수습기자
 (hosung@skuniv.ac.kr)



그대 곁에 항상 있는 서경,
 서경대학교 개교 78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우리대학 2025학년도 법정 의무교육 실시... 총장 포함 전 구성원 참여

주차	교육명	교육기간	교육대상
1주차	성희롱·성폭력 예방	2025.11.04(수)~2025.11.05(목)	전 구성원
2주차	가정폭력 예방	2025.11.06(금)~2025.11.07(토)	전 구성원
3주차	스토킹 범죄 및 교제 폭력 예방	2025.11.08(일)~2025.11.09(월)	전 구성원
4주차	성희롱 및 성폭력 예방(특화)	2025.11.10(화)~2025.11.11(수)	전 구성원
5주차	장애 인식개선교육	2025.11.12(목)~2025.11.13(금)	전 구성원

우리대학은 지난 9월 25일(목)부터 법정 의무교육인 '폭력예방교육', '장애 인식개선교육'을 실시했다. 법정 의무교육이란 전 구성원을 대상으로 법에 따라 대학에서 반드시 실시해야 하는 필수 교육을 말한다. 학생처 공지 사항 기준으로 12월 20일(토)까지 이수하면 된다. 교육 방법은 서경포탈에 접속해

메인 수강 교과목에 업로드된 법정 의무교육 콘텐츠로 들어가 안내된 모든 영상을 시청하면 된다. 교육 완료 후 제시된 모든 영상을 빠짐없이 이수해야 하고, 진도율과 완료 여부를 학습 관리 시스템이 계산해 반영하고 있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성희롱·성폭력 예방 △ 가정폭력 예방 △ 스토킹 범죄 및 교제 폭력

예방 △ 성희롱 및 성폭력 예방(특화) △ 장애인식개선교육으로 구성돼 있다. 모두 교내 안전과 존중 문화를 만드는 데 핵심이 되는 주제다. 구성원이 교내·외에서 지켜야 할 기본 원칙과 대처 방법을 다룬다. 이전보다 사건·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스토킹 및 교제 폭력 등 다양한 사회 문제를 반영해 교육에 포함했다.

만약 이수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부과 및 특별 교육을 받게 되니 반드시 기간 내에 교육에 참여해야 한다. 회원가입 혹은 수강 신청할 때 '서경대학교'를 입력한 경우는 별도로 이수증을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공지 사항으로 안내된 방법이 외의 방법으로 이수하거나 다른 기관에서 이수한 경우는 이수증을 제출해야 한다.

한편, 미래융합학부 1·2, 자유전공학부 소속 학생 중 'Major Design Camp'에 참가해 '성폭력 예방 교육' 및 '장애 인식개선교육'을 이미 이수한 학우는 해당 교육을 추가로 이수하지 않아도 된다. 최재용(아텍 25) 학우는 "가장 인

상 깊게 들었던 교육은 '장애 인식개선교육'이었다"며 "영상에서 '사회적 장애인식 개선'과 '장애 감수성', 그리고 '8대 예절'에 대해 다뤘는데 실제 사례를 애니메이션 형식으로 구성해 전달한 점이 인상 깊었다"고 말했다. "영상에 수어 통역사가 함께 등장해, 누구나 볼 수 있도록 배려한 점이 마음을 따뜻하게 했다"고 밝혔다.

그는 개선이 필요하다고 느낀 부분으로 '강의 안내와 홍보 부족'을 꼽았다. "장애 인식개선교육을 처음 들었을 때, 이런 강의가 서경포탈에 올라와 있다는 것도 처음 알았고 필수로 들어야 하는 교육이라는 것도 그전에는 알지 못했다"며 이는 "개인적인 경험이지 아니라 많은 학생이 공감할 부분일 거 같다"고 전했다.

이어 "학과 단체 채팅방 공지, 서경포탈 대표 화면 안내문, 학기 초 오리엔테이션 안내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알린다면 훨씬 많은 학생이 참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심화평 수습기자 (marksim@skuniv.ac.kr)

우리의 삶과 뷰티를 예술로 승화하다

메이크업디자인학과 제2회 졸업전시회 성료



지난 10월 17일(금), 대학로 서경대 공연예술센터 지하 1층 SKON 갤러리에서 메이크업디자인학과 제2회 졸업전시회가 개최됐다. 10월 19일(일)까지 3일간 진행된 이번 전시의 모든 것을 총괄한 졸업전시준비위원회(이하 졸준위)의 김아란(메디 22) 학우를 인터뷰했다.

Q.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A. 안녕하세요. 서경대학교 미용예술대학 메이크업디자인학과 22학번 졸업전시준비위원회 위원장(이하 졸준위원장) 김아란입니다.

Q. 메이크업디자인학과 졸업전시 '흔적'에 대해 설명하자면. A. 이번 주제 선정은 관람객들이 저희의 전시를 완벽하게 이해하고 가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시작했습니

다. 흐름성이 돋보이는 전시를 만들고자 정말 많은 고민 끝에 '흔적'이라는 단어를 선정했고, 이번 《흔적: 졸업전시》가 개최됐다. 10월 19일(일)까지 3일간 진행된 이번 전시의 모든 것을 총괄한 졸업전시준비위원회(이하 졸준위)의 김아란(메디 22) 학우를 인터뷰했다.

Q. 졸준위로서 전시를 준비한 소감은? A. 준비를 시작한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전시를 끝내고 인터뷰를 하고 있다는 게 실감이 잘 안 납니다.

졸준위로서 전시의 A부터 Z까지 모든 것을 고민하고 진행했고, 결정하는 과정이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하지만 열심히 준비한 만큼 성공적으로 전시회를 마친 것 같아서 제 노력이 보답받은 기분이고, 뿌듯함 등 여러 감정이 교차합니다. 평소에도 책임감을 정말 중요시 생각하는 데 이번을 계기로 그 중요함을 다시 깨달았고, 저를 믿고 열심히 따라와준 메이크업디자인학과 학우분들께 감사드립니다.

Q.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한마디. A. 치치고 힘든 순간이 유독 많았을 것 같은 우리 졸준위 친구들에게 가장 먼저 정말 고생했고 고맙다고 말하고 싶고, 전시가 잘 진행되도록 열심히 도와준 메이크업디자인학과 회장단, 학생회 외 모든 후배에게도 너무 감사드립니다. 또한, 4년 동안 아낌없는 가르침을 주신 주영주 교수님, 신세영 교수님께도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서경대학교 미용예술대학 메이크업디자인학과는 앞으로도 K-BEAUTY 발전에 힘쓰는 학과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서경대학교 메이크업디자인학과 제2회 졸업전시회에 와주시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김나연 기자 (nykim0409@skuniv.ac.kr)

“청춘의 조각, 나의 시간”

2025 미상 전시회를 이끈 이주미 학우를 만나다



▲ 출처: 미상

지난 9월 17일(수)부터 9월 26일(금)까지 학술정보관 9층 자유열람실 로비에서 《청춘의 조각, 나의 시간》 전시가 진행됐다. 학술정보관과 동아리 '미상'이 함께 주관한 이번 전시는 다양한 사람들이 참여한 만큼 다채로운 청춘이 한자리에 모였다.

2024년 '미상' 설립 후, 지금까지 운영해 온 회장 이주미(시디 22) 학우는 "디자인, 경영, 무대패션, 나화생, 전권, 글비, 헤어, 공공, 음악 등 다양한 전공을 가진 21명의

부원이 각자의 청춘을 미술 작품으로 표현했다"고 설명했다. "전시 개최까지 일주일 남은 시점에 갑자기 일정이 미뤄졌었다"며 "어찌저찌 극복해 무사히 전시를 마쳐 참 다행이지만 그뻘 너무 힘들었다"고 당시를 회상하기도 했다. 더 자세한 이야기는 아래 인터뷰를 통해 만나볼 수 있다.

【학우 인터뷰】
- 이주미 (시각정보디자인전공 22학번)

Q. 동아리 '미상'을 소개하자면? A. 종종 입부 문의 시 "그럼 잘못 그러는데 괜찮나요?"라며 걱정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미상'은 미술을 잘하기 위해 만든 동아리가 아닙니다. 답답한 일상에서 잠시 벗어나 숨통을 트고자 만든 동아리입니다. 제가 좋아했던 미술을 다시 즐기고 더 좋아하려고 만든 동아리기에 미술에 관심만 있다면 누구나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Q. 학술정보관에서 전시를 진행하게 된 계기는? A. 준동아리 시절의 '미상'은 전

시를 진행할 마땅한 자금과 장소가 없었는데, 과거 학술정보관에서 동아리가 전시를 진행했던 게 생각났고, 부회장 장유진 학우가 학술정보관과 연락해 본격적으로 첫 전시 《나를 담은 동물 2025 달력 일러스트》를 추진했습니다.

이때 학술정보관 측에서 저희를 많이 응원하고 지원해 주셔서 이번에도 이곳에서 전시를 진행했습니다.

Q. 이번 전시에서 신겨 쓴 부분은? A. 청춘은 모두가 지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각양각색이죠. 모두가 공감하면서도 개인의 경험을 표출할 수 있는 주제를 잡고 싶습니다. 각자의 개성을 살릴 수 있도록 주제 해석과 표현 방식에 한 정을 두지 않았습니다. 그 덕에 이번엔 입체 작품도 나오고, 정말 색다른 청춘들이 전시를 채웠습니다. 우리 부원들뿐만 아니라 전시를 관람객들의 청춘도 공유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기에, 벽면에 포스터를 채워 자유롭게 글을 쓸 수 있도록 기획했습니다. 그 덕분에 정말 다양한 이야기들이 전시장 내에

머무를 수 있었는데, 해당 기록은 '미상' 인스타그램(@misang_sku) 릴스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Q. 전시를 진행한 소감은? A. 학생들뿐만 아니라 임직원, 외부인까지 정말 다양한 분들이 전시를 찾아주셨습니다. 청춘을 기대하는 사람부터, 지난 청춘을 추억하는 사람까지. 다양한 청춘들이 공유되고 서로 응원하고 위로하는 장소가 될 수 있어 기쁩습니다! 포스터를 다채롭게 채워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 전시 함께하며 고생해준 부원들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 덕분에 이번 전시도 좋은 경험 될 수 있었어요!

Q. 앞으로의 계획은? A. 내년엔 다른 친구가 화장지를 맡아아마 새로운 느낌의 '미상'이 될 것 같으나, '미상'은 앞으로도 부원들의 자유롭고 행복한 미술 경험을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미술에 관심이 있는 모든 분이 '미상'에서 미술을 더 즐기게 되었으면 합니다! 앞으로의 '미상'도 응원해 주세요!

김나연 기자 (nykim0409@skuniv.ac.kr)

몸과 마음의 건강을 지키자

본교 '나를 위한 갓생 프로젝트' 진행

본교 교수학습원에서 10월 23일(목)부터 11월 27일(목)까지 미래융합학부 1·2, 자유전공학부 학생을 대상으로 '나를 위한 갓생 프로젝트'를 진행한다. 갓생 프로젝트는 자기 주도 학습 태도와 건강 행동의 지속 가능성 강화를 돕기 위해 개설된 특강이다.

대학생들의 건강한 라이프스타일 형성을 목표로 하며 운동 원리, 영양, 수면의 역할 등에 대해 이론 학습을 시행한다. 이후 이론 학습 내용을 바탕으로 학생들이 자신만의 생활 습관을 설계하고 실천 계획을 세워 실행할 수 있도록 돕는 학습 순환을 구축했다. 프로젝트 이수 후에는 만족도 조사를 실시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FYP 포인트 10점을 지급한다.

교수학습원에 따르면 갓생 프로젝트는 △대학생의 건강한 생활 습관 형성을 위해 영양과 휴식의 중요성 인식 △운동과 병행하는 균형 잡힌 라이프스타일 구축 △생활 습관 개선의 습관화를 통해 자기 관리 역량 강화 △CREOS형 글로벌 리더 양성을 위한 자기 개발 역량 강화 △창의적 문제 해결 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진행된다.

갓생 프로젝트는 △몸과 마음의 건강 △몸의 건강: 식습관 관리 △몸의 건강: 다이어트 △마음의 건강: 심과 힐링 총 4가지 특강으로 구성돼 있다. 참가 신청 접수는 9월 8일(월)부터 11월 22일(수)까지 서경 포탈에서 진행됐다. 특강 당 정원은 총 60명으로 구성됐으며 선착순으로 모집했다.

'몸과 마음의 건강'은 1회차 특강으로 10월 23일(목)에 진행됐다. 이날 특강에서는 △몸과 마음의 건강 밸런스 △20대를 위한 건강 기본 가이드 △운동 초보자가 실천할 수 있는 간단한 운동법 등에 대해 강연했다.

'몸의 건강: 식습관 관리'는 2회차 특강으로 11월 3일(월), 11월 10일(월)에 진행된다. 특강에서는 △영양과 식습관 개선 △운동과 병행하는 건강한 식사 습관 △장운동을 위한 올바른 자세와 자세 교정 운동에 대해 강연한다.

'몸의 건강: 다이어트'는 3회차 특강으로 10월 30일(목), 11월 6일(목), 11월 20일(목)에 진행된다. 특강에서는 △안전한 운동 자세 점검과 부상 예방 △다이어트에 효과적인 운동법과 팀 △장기적인 체중 관리와 유지 전략 등에 대해 강연한다.



▲ 출처: 교수학습원

마지막으로 '마음의 건강: 삶과 힐링'은 2회차 특강으로 11월 13일(목), 11월 27일(목)에 진행된다. 특강에서는 △수면과 휴식의 과학 △건강한 수면 습관과 휴식의 중요성 △지속 가능한 건강 습관 만들기 등에 대해 강연한다.

몸과 마음의 건강 특강에 참여한 김서준(미용 25) 학우는 "효과적인 운동법에 대해 자세히 배울 수 있었다"며 "특강에서 알려주신 운동법을 직접 해보면서 운동법의 효과를 몸으로 느낄 수 있어서 좋았다"고 말했다. 이어 "유익한 내용들로 이뤄진 특강인 만큼 기회가 된다면 다음에 또 참여하고 싶다"고 소감을 밝혔다.

김서연 수습기자 (kimsy050317@skuniv.ac.kr)

한 눈에 보는 이슈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78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검찰청'... 검찰 개혁의 역사적 의미와 과제	미국 H1B 비자 수수료 인상... 기업과 국제 사회의 반응은?	디지털 정부의 아킬레스건... 국가 전산망은 왜 멈췄나	'이게 진짜 일리 없어...' 카카오톡 대규모 업데이트에 이용자 불만 폭발	"암 인식 개선인데 술 파티?" 논란의 유방암 자선행사	전통의 힘, 세계 무대에 우뚝 서다

※ 자세한 내용은 사회면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

자세히 보는 이슈

78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검찰청'... 검찰 개혁의 역사적 의미와 과제



▲ 출처: 연합뉴스

1948년 설립 후 78년 만에 검찰청이 간판을 내린다. 지난 9월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따라, 내년 10월 2일부터 검찰청은 중대범죄수사청(이하 중수청)과 공소청으로 분리돼 운영된다. 이번 개혁으로 수사와 기소가 완전한 분리를 이루면서 권력 집중이 완화될 전망이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재석 180명 가운데 찬성 176명, 반대 1명, 기권 3명으로 가결됐다. 국민의힘이 본회의의 상정 이후 필리버스터를 벌였지만, 24시간이 지난 후 여권이 토론 종결 후 강행 처리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명확하다. 수사 기능은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

산하 중수청이, 기소 기능은 법무부 산하 공소청이 담당하게 된다. 중수청은 부패·경제·선거 등 9대 중대범죄를 전담한다. 공소청은 기소와 공소 유지 등을 맡는다.

검찰청 폐지는 수십 년간 누적된 검찰권 남용의 결과로 풀이된다. 일명 '검찰공화국'이라는 비판 속에 검찰은 스스로 명분을 제공했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한다.

윤석열 정부 시절의 편향된 수사 방향이 결정타였다.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표에 대한 전방위 수사와 달리, 김건희 여사의 추가조사 사건은 제삼의 장소 조사 등 논란 끝에 무결의 처분됐다.

세계일보에 따르면, 한국갤럽 여

론조사 결과, 국민 52%가 검찰청 폐지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진보층은 82%가 찬성한다고 답했고, 중도층에선 53%였다. 반면 보수층은 75%가 반대한다고 밝혔다.

검찰청 폐지에 대해 20대 A 씨는 "지나친 개혁으로 오히려 혼란과 비효율만 불러올 것 같다"며, "새 기관들이 잘 자리 잡을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전했다.

20대 B 씨는 "분명한 역할 분리가 이뤄져서 권력이 집중됐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잘못 운영되면 다시 되풀이될 거 같아 걱정"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검찰청 폐지 결정에도 불구하고 1년간의 유예 기간 동안 해결해야

할 과제가 쌓여있다. 먼저, 중수청과 공소청이 제대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제도적 준비가 중요하다. 특히 법무부 산하가 될 공소청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중수청과 경찰, 국가수사본부 등 수사기관들이 행안부 산하로 모이면서 권력 집중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이것이 또 다른 권력 집중과 남용을 낳을 수 있어 경계가 필요하다.

검찰뿐만 아니라 전체 형사사법 시스템의 통합적 개혁도 포함된다. 수사·기소 분리는 불가피하지만, 이를 보완하기 위한 경찰권, 법원 등 관계 기관 간 협력 및 역할 분담 체계도 재정립돼야 한다. 참고: 오마이뉴스.

이러한 검찰 개혁 과정에서 나타난 헌법적 위헌성 논란 및 거센 반발을 넘어서는 사회적 합의도 필수적이다. 검찰 내부의 반발과 법적 다툼 속에서도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한 투명하고 지속 가능한 개혁 추진이 중요하다.

검찰청 개혁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다. 권력기관에서 법률기관으로 변모함으로써 국민에게 신뢰받는 공정한 사법 체계를 다시금 구축하는 것이 목표다.

"건국 이래 처음 검찰 없는 시대의 첫걸음이 진정한 사법개혁의 완성이 될지는 앞으로의 행보에 달렸다."

심화평 수습기자
(marksim@skuniv.ac.kr)

미국 H1B 비자 수수료 인상... 기업과 국제 사회의 반응은?

지난 9월, 미국 정부가 과학·기술·공학·수학(STEM) 분야의 전문직 취업 비자인 H1B 비자 수수료를 기존 1천 달러(약 140만 원)에서 10만 달러(약 1억 4천만 원)로 100배 인상한다는 포고문을 발표했다. H1B 비자는 추첨을 통해 발급되며 연간 발급 건수가 8만 5천 건으로 제한돼 있다. 기본 3년간 체류가 허용되며 연장과 안정적으로 영주권 취득 또한 가능한 비자다.

포고문 서명식 당일 트럼프 대통령과 함께 참석한 하워드 러트너 상무장관은 "수수료가 연간이며 6년까지 적용된다. 매년 10만 달러를 내야 한다"며 "이제 회사는 미국인을 고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H1B 비자 수수료 인상은 트럼프 대통령이 꾸준히 강조한 '자국민 보호 정책'의 일환으로 해석된다. H1B 비자 때문에 미국인이 취업에서 불이익을 당한다는 인식이 커지자, 자국민의 취업 보호를 목적으로 비자 수수료를 인상한 것으로 보인다. 미국 정부는 H1B 비자 제도를 향해 "자국민 노동자를 대체하는 저임금 고용 수단으로 악용된다"고 규정하기도 했다.

하지만 포고문 발표 다음 날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소셜미디어 'X'를 통해 H1B 비자 수수료를 대폭 인상하는 저임금 고용 수단으로 악용된다는 지적을 반박했다. 레빗 대변인은 "10만 달러는 매년 내는 수수료가 아니라 신청할 때 한 번 내는 금액"이라며 "이미 H1B 비자를 소지하고 있는 사람, H1B 비자 영장을 신청한 사람과 소지한 상태로 해외에 나가 있는 사람들이 재입국할 때는 수수료가 부과되지 않는



▲ 출처: 로이터

다"고 밝혔다. 백악관 역시 'X' 계정으로 해당 글을 재게시하며 같은 생각을 보였다. 하루도 지나지 않아 입장을 번복한 정부에 외국인 고용이 많은 미국 기업의 우려를 의식해 한발 물러섰다는 반응이 나온다.

정부의 비자 수수료 인상 발표에 미국 기업들도 비상이 걸렸다. 실리콘밸리에서는 "세계에서 가장 똑똑한 인재를 미국으로 데려오려는 의욕이 떨어지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왔다. 또한 구글, 마이크로소프트를 비롯한 여러 테크기업들은 H1B 비자 보유 직원들에게 미국을 떠나지 말 것을 강조했고, 해외에 머무는 중인 H1B 비자 보유 직원들에게 즉시 미국으로 돌아올 것을 권고했다.

미국으로 취업을 준비하던 국내 취업 준비생에게도 비상이 걸렸다. 미국으로 취업을 준비 중이던 서울과학기술대학교에 재학 중인 A씨

는 "곧 졸업인데 갑작스러운 제도 변화에 취업 계획이 차질이 생겨 걱정이 크다"며 "미국 취업을 포기하고 국내나 유럽 국가 쪽 취업을 알아봐야 할 것 같다"고 전했다.

미국의 H1B 수수료 인상 소식에 중국, 영국 등 국제 사회에서도 인재를 영입하기 위해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영국은 2020년부터 시행하던 글로벌 인재 비자의 수수료를 대폭 인하하거나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독일 또한 "우리는 하룻밤 사이에 규칙을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겠다"고 말하며 포용적인 이민 정책을 강조하고 있다.

우리 정부는 석학·신진급 해외 인재 유치에 해 연구 분야 인재 특별비자 신설을 추진하고 있으며 해외 인재 유치에 적극적으로 나설 예정이다.

김서연 수습기자
(kimsy050317@skuniv.ac.kr)

디지털 정부의 아킬레스건... 국가 전산망은 왜 멈췄나

지난 9월 26일 20시를 조금 넘은 시각,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이하 국정자원)에서 발생한 화재가 대한민국 디지털 행정 시스템을 마비시켰다. 모바일 신분증, 정부 24, 국민신문고 등 국민 생활과 직결된 주요 서비스가 멈추면서 국가 핵심 인프라의 안정성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이 제기됐다.

경찰과 소방 당국 조사에 따르면, 화재는 5층 전산실에서 리튬이온 배터리 이전 작업 중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전산실 내부로 번진 불길은 약 22시간 만에 진화됐다. 현재까지 인명피해는 화재 발생 당시 배터리 교체 작업 중이던 업체

직원 1명으로 보고됐으며, 생명에 지장이 없는 가벼운 부상도 전해졌다.

초기 정부는 국정자원이 관리하는 시스템 중, 총 647개 시스템이 중단됐다고 밝혔으나 이후 709개로 정정됐으며, 이 중 96개 시스템은 직접적인 피해를 봤다. 정부는 사태 직후 위기 경보 수준을 '심각'으로 즉시 상향했다. 전산 연계 서비스가 작동을 멈춰 무인 발급기를 사용할 수 없었기에 급한 민원서류는 직접 주민센터를 방문해야 했다. 주류를 구매하려던 대학생 A씨(20세)는 "평소처럼 PASS 앱을 사용해 모바일 신분증을 제시하려

다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하다고 떠들었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내부 행정 마비는 더욱 심각했다. 공무원 행정망인 온나라시스템이 마비됐고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등 10여 개 중앙부처 홈페이지가 접속 불가 상태에 빠졌다. 심지어 중앙정부 공무원들이 업무 자료를 보관하던 G-드라이브 시스템이 파손되고 백업 데이터까지 유실된 사실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통해 드러났다.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행정 데이터 관리 체계의 한계를 드러낸 셈이다. 시스템이 대전 국정자원 본원에 과도하게 집중된 중앙 집중형 구조가 피

해 규모를 키웠다는 지적이다. 상대적으로 서버를 분산하거나 외부에 둔 지자체는 피해가 적었다는 사실은 이 한계를 증명했다.

더 큰 문제는 정부의 재난 복구(DR) 체계 미흡이다. 2022년 카카오 먹통 사태 이후 정부는 데이터 센터 화재에 대비한 훈련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유사한 사고에 무방비했다. 재난 복구 시스템의 실효성이 확보되지 못한 채, 형식적인 훈련에 그쳤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화재 원인으로 추정되는 리튬이온 배터리의 안전 관리에도 관심이 쏠렸다. 열폭주 특성을 가진 리튬 배터리가 밀집된 전산실에서 화재가 발생할 경우, 피해 확산은 불가피하다.

결국 재난 대비는 단순한 매뉴얼 작성이 아니라, 실질적인 '복원력 확보'가 핵심이다. 한 곳이 마비되더라도 기능이 즉각 대체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 정부는 현재 피해 시스템을 대우센터 등 타 센터로 이전하고 모든 행정 시스템에 대한 안전 전수 점검에 착수했다. 이번 사태는 행정 전반을 온라인으로 관리하려는 정부의 디지털 행정 전환 정책에 빼어난 경고장을 던졌다. 이에 국민은 재난 대응 시스템의 부실을 우려하며, 행정 시스템 구축과 신속한 대응 체계의 개선이 절실하다는 목소리를 냈다.

송재이 수습기자
(winsong83@skuniv.ac.kr)

'이게 진짜 일리 없어...' 카카오톡 대규모 업데이트에 이용자 불만 폭발



▲ 출처: 한국일보

국민 채팅 어플 '카카오톡'이 지난 9월 23일 대규모 업데이트를 단행했다. 하지만 카카오톡의 이러한 행보에 많은 이용자들의 비판이 잇따르고 있다.

이번 업데이트의 주된 배경은 이용자들의 카카오톡 사용 시간 감소다. 최근 이용자들이 인스타그램 DM(Direct Message), Discord 등 다른 소셜 미디어로 이동하는 사례가 많아졌다.

이에 카카오톡은 이용자들의 이탈을 막고 플랫폼 체류 시간을 늘리기 위해 다양한 미디어 기능을 탑재한 대규모 업데이트를 시행했다. 실제 카카오톡 내부에서도 '빅뱅'이라는 프로젝트명을 내세우며 업데이트에 집중한다는 걸 알렸다.

카카오톡 업데이트 후 가장 큰 변화는 타임라인·피드형 UI 도입이다. 인스타그램과 유사하게 친구의 게시

물을 타임라인 형태로 보여준다.

또한, 채팅방 폴더 기능이 새롭게 추가됐다. 아직 읽지 않은 메시지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안 읽음' 폴더가 기본으로 제공된다. 이용자는 '안 읽음' 기본 폴더 외에도 최대 10개의 카테고리별 폴더를 직접 설정할 수 있다.

채팅 수정 기능도 강화됐다. 기존에는 5분 이내 채팅만 수정 가능했다. 하지만 이번 업데이트로 24시간 이내에는 언제든지 수정이 가능해졌다.

이러한 카카오톡의 대규모 업데이트에 많은 이용자들의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20대 사용자 강규빈 씨는 "카카오톡을 인스타그램처럼 바꾸려는 시도는 솔직히 이해하기 어렵다. 업데이트 전에는 카카오톡만의 간결함과 차별성을 내세워 모든 세대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점이 좋았다"고 말했다. 이어 "업데이트 후에

는 카카오톡만의 고유성이 사라져 20대는 인스타그램 DM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 같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50대 사용자 A 씨는 "카카오톡의 장점은 전 세대에 걸쳐 입문하기 쉬운 대국민 어플이다. 하지만, 이 부분을 간과하고 업데이트를 시행해 이제는 모든 세대가 만족하는 어플로 불리게 어렵게 됐다"고 언급했다. 이어 "카카오톡은 업무용으로도 활용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업데이트 후에는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 등 개인 SNS 같은 가벼운 느낌을 주어서 아쉽다"는 견해를 밝혔다.

실제로 카카오톡 대규모 업데이트 이후 카카오톡은 엄청난 타격을 입었다. 업데이트 당일 주가는 6.17%p로 대폭 하락했으며, 나흘 만에 시가총액 3조 원이 증발했다. 또한, 플레이스토어 및 App Store 평점이 최하로 떨어지는 등 부정적인 영향이 이어지고 있다.

카카오 우영규 부사장은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업데이트에 대해 정면 돌파했다. 그는 "이용자들의 불편과 개선 요구를 인지했다. 방법을 구안해 보겠다"고 언급했다.

김호성 수습기자
(hosung@skuniv.ac.kr)



▲ 출처: 더불어민주당

서경대학교 개교 78주년 기념 총장 축사



서경대학교 총장 김범준

사랑하는 서경 가족 여러분,

오늘 우리 서경대학교가 개교 78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이 뜻 깊은 날, 먼저 우리 대학을 위해 헌신해 주신 법인 이사장님, 역대 총장님, 교수님과 직원 여러분, 그리고 묵묵히 학교의 발전을 응원해 온 동문과 재학생 여러분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드립니다.

우리 대학은 1947년 '한국대학'으로 첫 발을 내디딘 이래, 1955년 '국제대학', 1992년 종합대학교 승격과 함께 '서경대학교'라는 이름으로 거듭나며 실용주의에 기반한 교육 철학을 실현해 왔습니다.

지난 78년 동안 우리는 수많은 난관 속에서도 실용학풍을 바탕으로 수많은 인재를 길러냈고, 그 졸업생들이 한국 사회 곳곳에서 학문, 경제, 법조, 예술, 문화 등 다양한 분야를 이끌며 국가 발전과 사회적 가치 창출에 크게 기여해 왔습니다.

최근 몇 년간 한국의 대학은 학령인구 급감과 재정 압박이라는 큰 도전에 직면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서경대학교는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선택을 해왔습니다.

'실용과 혁신을 최고 가치로 미래를 선도하는 대학'이라는 비전 아래 학사 구조를 전면 개편하고,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할 미래융합대학을 신설했습니다. 글로벌비즈니스, 인텔리전트비즈니스, 비즈니스언어, 컴퓨터소프트웨어, AI빅데이터, 파이낸스앤테크, 아트·스포츠앤테크놀로지 등 신산업과 글로벌 수요에 맞춘 전공을 마련했으며, 도시·환경화학·토목건축, 인텔리전트컴퓨팅, 인텔리전트디바이스, 공공·경찰행정, 군사, 아동청소년 등 사회 현상 밀착형 전공도 강화했습니다.

그 결과, 서경대학교는 정부 재정지원사업 선정에서 꾸준히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대학혁신지원사업, 국가근로장학 취업 연계중점대학사업, 소프트웨어 전문인재 양성사업, 해외취업 연수사업, 부처협업형 인재양성사업, 대학-기업 협업형 SW아

카데미사업,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사업, 찾아가는학교컨설팅사업, 서울시 캠퍼스타운사업 등 다수의 국가 및 지자체 사업에 선정되며 우리 대학의 혁신 역량을 입증했습니다. 또한 2025년부터 본격 추진되는 RISE(지역혁신중심 대학 지원제) 사업에도 대응하기 위해 SK-RISE 사업단을 신설하여, 지역과 산업을 연결하는 허브 대학으로서의 위상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국제적 경쟁력도 빠르게 성장했습니다. QS 아시아 대학 평가에서 19,000여 개 대학 중 500위권에 진입했으며, 한국기업평판연구소 발표 전국 100대 대학 브랜드 평판 순위에서도 21년 17위를 기록한 이후 꾸준히 상위권을 기록했습니다. 외국인 유학생 수도 23개국 1,500여 명을 돌파하며 서울지역 강소 대학 가운데 최상위를 지키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주목할 성과는 학생들입니다. 학생 1인당 교육비와 장학금 투자액은 서울권 대학 중 중상위 수준이며, 서울지역 대학 중 5년 연속 취업률 TOP 10을 기록했습니다. 입시 경쟁률 또한 20대 1 이상을 꾸준히 유지하며, '다날수록 좋은 대학, 만날수록 성장하는 학생'이라는 슬로건을 현실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서경대학교는 올해 연구·산학·취업 기능을 통합, 고도화하기 위해 연구산학부총장직 신설과 직제 개편을 단행했습니다. 진로취업처, 산학연구처, 창업지원단, 국가정책사업단 등이 체계적으로 연계되어 학생들에게는 교육-현장실습-취업-창업으로 이어지는 풀 패키지 지원체제가 마련되었습니다. 특히 신설된 SK-RISE사업단은 우리 대학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미래를 상징합니다. RISE 사업은 대학이 지역 산업 및 사회와 연계해 혁신을 선도하도록 국가가 지원하는 대규모 정책입니다. 서경대학교는 서울 성북구, 강북구, 더 나아가 수도권 산업과 연계하여 도시문제 해결, 청년 일자리 창출, 지역·산업 맞춤형 인재 양성에 집중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 대학은

'지역을 키우고, 산업을 살리고, 학생을 성장시키는 대학'이라는 새로운 모델을 제시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서경 가족 여러분,

우리 대학의 저력은 바로 사람입니다. 교수님들의 헌신적인 교육과 연구, 직원 여러분의 헌신적 뒷받침, 학생들의 열정과 도전 정신, 그리고 동문들의 자랑스러운 발자취가 모여 오늘의 서경을 만들어냈습니다.

개교 78주년을 맞이한 지금, 우리는 다시 새로운 도약의 문턱에 서 있습니다. AI와 디지털 혁신, 지속가능한 미래, 글로벌 네트워크라는 거대한 흐름 속에서, 서경대학교는 더 실용적이고, 더 첨단에 서며, 더 세계적인 대학으로 성장할 것입니다.

우리 대학은 앞으로도 대학의 이름을 높이는 것보다 학생 한 사람의 미래를 더 소중히 여기겠습니다. 학생 개개인의 꿈을 꽃피우는 교육,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연구, 지역과 산업을 이끄는 산학협력, 그리고 세상을 이롭게 하는 지식 공동체로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친애하는 서경 가족 여러분,

오늘의 성취는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출발입니다. 여러분이 보여주시는 서경에 대한 사랑과 열정이 있다면 어떤 도전도 두렵지 않습니다.

개교 78주년의 기쁨을 새로운 도약의 에너지로 삼아, 우리 모두 함께 서경대학교의 더 큰 미래를 열어갑시다. 여러분이 바로 서경의 가장 값지고 대체 불가능한 자산입니다. 감사합니다.

제53대 한빛 총학생회 총학생회장 최창조



서경대학교 신문 애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53대 한빛 총학생회 총학생회장 국제비즈니스어학부 노어전공 20학번 최창조입니다. 우선 서경대학교의 개교 78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서경대학교는 한국대학이라는 교명으로 개교한 1947년부터 현재까지 학생들에게 무한한 발전 가능성을 심어주는 교육기관의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리 학교는 변화하는 시대의 흐름에 맞추어 실용 중심의 가치를 추구하고 효율적인 교육을 선도하는 학교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학교에 대해 인상 깊게 느낀 점 하나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경대학교는 다양한 진로 프로그램 및 전공 탐색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저는 유답관에서 진행되었던 JOB FIESTA에 참여했습니다. 늘 문자로만 받아보던 진로 취업 관련 행사에 올레가 되어서야 직접 참여를 해보았는데, 정말 도움이 되는 색다른 경험이었습니. 저에게는 항상 양질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노력하는 학교의 마음이 느껴지는 소중한 기회였습니다. 진로에 대한 고민에 도움이 될 다양한 기회들이 상시 준비되어 있으니 대학 일자리 플러스 본부나 진로취업지원센터 프로그램들을 적극 활용하시는 것을 학우 여러분께 추천해 드립니다.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서경대학교에서 학우 여러분들이 미래를 탐색하고 다양한 경험을 하며 사회로 나아가 학교를 빛내는 인재들로 자리 잡기를 소망합니다. 더불어 우리 서경대학교가 100주년을 넘어 아득한 미래까지 무궁히 발전하는 학교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다시 한번 서경대학교의 개교 78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제53대 한빛 총학생회 부총 권한대행·정책기획국장 윤의찬



안녕하십니까. 제53대 한빛 총학생회 부총학생회장 권한대행 및 정책기획국장, 전자공학과 20학번 윤의찬입니다. 먼저, 우리 서경대학교의 개교 78주년을 맞아 함께 해 주신 서경 가족 여러분께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지난 78년간 우리 서경대학교는 수많은 변화와 도전을 거치며, 사회의 발전과 함께 성장해왔습니다. 선배님들의 열정과 교수님들의 헌신, 교직원분들의 노력, 그리고 학우분들의 도전이 모여 오늘의 서경을 만들어주셨습니다. 그 발자취 하나하나가 우리 대학의 자랑이며, 앞으로 나아가길 길을 비추는 소중한 힘이라 생각합니다. 세월이 흘러도 서경대학교는 서로를 존중하며 함께 성장하는 공동체로 이어져 왔습니다. 학우분들뿐만 아니라 모든 서경 가족이 한마음으로 발전을 이어가며, 화합과 연대의 정신이 서경대학교의 또 다른 힘임을 다시금 느낍니다.

여러분, 78년이라는 시간은 결코 짧지 않은 역사입니다. 그 시간 동안 서경대학교는 수많은 성장과 변화를 이뤄왔고, 앞으로의 여정에서도 우리는 그 역사의 주인공이 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함께 배우고, 함께 웃고, 함께 만들어가는 대학 안에서, 서로에게 힘이 되는 존재로 남길 바랍니다.

끝으로, 서경대학교의 개교 78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우리 모두의 내일이 '서경'의 이름 아래 더 빛나는 이야기로 이어지길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제35대 찬란 인문대 정학생회장 구진모



안녕하십니까, "찬란한 인문, 함께 더 밝게" 제35대 찬란 인문과대학 정학생회장 글로벌비즈니스어학부 불어전공 23학번 구진모입니다.

우선 서경대학교의 개교 78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우리 학교의 역사에 작은 한 줄이라도 함께할 수 있음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지나온 시간들을 되새기고 함께 기억할 수 있어 참으로 뜻깊게 외닿습니다.

지난 78년간 서경대학교는 수많은 어려움과 변화를 겪으면서도 교육의 본질을 지켜왔습니다. 그 속에서 교수님들의 헌신적인 가르침과 교직원분들의 묵묵한 노력, 그리고 학생들의 열정이 어우러져 오늘의 서경대학교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천천히 쌓여온 이 모든 시간은 우리의 빛이 되었습니다. 그 시간 속에서 우리 학교는 단순한 배움의 공간을 넘어, 청춘의 꿈과 도전이 저러나는 따뜻한 터전이 되어주었습니다.

우리 학교의 슬로건인 "그대 앞엔 세계, 그대 곁엔 서경", 이 문장은 단순한 구호가 아니라, 서경대학교가 지향하는 교육의 방향이자 학생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전하는 진심 어린 약속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여러분의 앞에는 무한한 가능성이 펼쳐져 있고, 그 길을 거니는 여러분의 곁에는 언제나 우리 학교가 든든히 함께할 것입니다.

오늘의 78년은 어제의 발자취를 딛고 내일의 희망으로 이어지는 시간입니다. 우리 모두가 서경대학교의 이름 아래 서로를 응원하며, 더 밝고 희망찬 미래를 향해 함께 나아가길 바랍니다. 끝으로, 더 큰 세계에서 여러분을 만날 미래를 기대하며 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27대 찬란 사회과학대 정학생회장 임정인



안녕하십니까, "빛나는 순간, 함께여서 찬란한 우리" 제27대 찬란 사회과학대 정학생회장 경영학부 22학번 임정인입니다. 먼저 서경대학교 개교 78주년을 맞아 사회과학대학을 대표하여 축하하게 되어 영광입니다. 서경대학교 개교 78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서경대학교는 1947년 설립 이래 홍익인간의 건학이념 및 '지혜, 인의, 용기'의 교육목표 아래 끊임없이 성장하며 오늘날 인성과 전문성을 갖춘 인재를 길러내는 대학으로 발전해 왔습니다. 지금의 서경대학교가 있기까지 헌신과 열정으로 학교를 지켜오신 교수님들과 선배님들, 그리고 함께 맘 흘려온 모든 학우에게 깊은 존경과 감사를 표합니다.

오늘의 서경대학교는 여러 사람의 노력 위에 세워졌고, 내일의 서경은 우리 모두의 손으로 만들어지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 학교의 발전과 공동체의 성장을 위해 한마음으로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저희 찬란 학생회도 여러분이 학교생활 속에서 더 많은 기회를 누리고, 즐겁게 소통할 수 있도록 작은 목소리도 놓치지 않고 항상 곁에서 함께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서경대학교의 개교 78주년을 축하하며, 우리 모두의 열정과 꿈이 서경의 미래를 밝혀가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제34대 백야무적 이공대 정학생회장 이효준



안녕하십니까. 서경대학교 제34대 백야무적이공대 정학생회장, 전자공학과 20학번 이효준입니다.

개교 78주년을 맞아 우리대학의 역사와 정신을 다시 한번 되새기는 서경대학교 개교기념회 발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입학 이후 교내 곳곳에서 활동하며, 저는 서경 공동체가 쌓아 올린 전통과 도전의 시간을 가까이에서 보아 왔습니다. 선배·동문·교직원·재학생 모두의 뜻과 헌신이 모여 오늘의 서경을 만들었고, 그 발자취를 한 권의 기록으로 묶어낸 이번 개교기념회는 우리 대학의 자부심이자 다음 세대를 위한 이정표라 생각합니다.

특히 올 한 해 단과대학과 여러 부서에서 연구·산학·문화·봉사 등 다채로운 활동이 이어졌습니다. 그 현장을 발로 누비며 생생한 이야기를 담아낸 서경대학교 신문사 기자님들의 노력 덕분에 많은 학우들이 학교의 변화와 성장을 더 가까이 느낄 수 있었습니다. 언제나 학생의 시선으로 기록하고, 공동체의 목소리를 연결해 주신 모든 분께 깊은 감사와 존경을 전합니다.

앞으로도 개교 정신인 성실과 창의, 그리고 책임을 잊지 않고, 변화의 흐름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서경의 역사와 문화를 밝히는 든든한 등불이 되어 주시길 바랍니다. 이공대학 학생회 역시 학우들의 참여와 소통을 넓히고, 더 나은 캠퍼스 문화를 만들어가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다시 한번 서경대 개교 78주년과 개교기념회 발간을 축하드리며, 모든 구성원이 하나 되어 만들어갈 서경대학교의 더 큰 도약과 변명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제27대 통합청춘 예술대 정학생회장 노혜림



안녕하십니까, 서경대학교 제27대 통합청춘예술대 정학생회장 디자인학부 22학번 노혜림입니다.

서경대학교의 개교 78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개교 이래 서경대는 '실용이 최고의 가치'라는 건학 이념 아래, 학문과 실천이 조화를 이루는 교육을 실현해 왔습니다. 급변하는 사회 속에서도 실용적 교육과 창의적 연구를 통해 시대가 요구하는 인재를 길러내며, 교육의 본질을 지켜온 서경대의 발자취는 큰 자부심입니다.

서경대는 시대의 흐름에 맞춰 꾸준히 발전하고 있습니다. 학생의 가능성을 확장하는 융합 교육과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는 다양한 활동, 그리고 문화와 예술이 어우러진 열린 캠퍼스는 서경대가 추구하는 '실용의 가치'를 잘 보여줍니다. 학교는 단순한 배움의 공간이 아니라, 학생 개개인이 스스로의 길을 찾고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든든한 동반자입니다.

이제 졸업한 앞둔 4학년으로서 돌아보면, 서경대가 제게 가르쳐준 가장 큰 깨달음은 '배움은 삶에서 실천될 때 빛난다'는 것입니다. 실용의 교육 철학은 제 진로와 가치관에 깊은 영향을 주었고, 앞으로 어떤 길을 가더라도 현실 속에서 의미 있는 변화를 만들어내는 사람이 되고 싶다고 다짐하게 합니다.

앞으로 서경대가 100년을 향한 새로운 도약 속에서 더 큰 발전을 이루고, 미래 사회를 선도하는 대학으로 우뚝 서길 바랍니다. 예술대 학생회장으로서 저 또한 구성원들과 함께 학교의 발전과 예술대의 성장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서경대학교의 개교 78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제1대 하나 미래융합대 정학생회장 신윤아



안녕하십니까. 서경대학교 제1대 하나 미래융합대 정학생회장 경영학부 23학번 신윤아입니다.

서경대학교의 개교 78주년을 맞아 축하의 말씀을 드릴 수 있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78년의 세월 동안 우리대학은 사회와 인류 발전에 이바지할 인재를 길러내며 굳건히 성장해 왔습니다.

이는 역대 총장님과 교직원 여러분의 헌신, 교수님들의 열정적인 교육과 연구, 그리고 학교와 함께 걸어온 동문과 재학생 여러분의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모든 서경인들께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급변하는 시대 속에서도 서경대학교는 창의적이고 융합적인 인재를 양성하며 미래 교육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가고 있습니다. 유연한 사고와 도전 정신을 기르는 혁신적인 교육은 우리대학의 가장 큰 자랑이자 앞으로의 발전을 이끌 핵심 동력입니다. 학생회장으로서 이러한 변화의 흐름 속에 함께할 수 있음에 큰 자부심을 느낍니다.

존경하는 학우 여러분, 우리는 78년의 자랑스러운 전통 위에서 새로운 도약을 준비해야 합니다. 서로 응원하고 협력하며 서경의 이름 아래 더 큰 꿈을 향해 나아가갑시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성장이 곧 서경대학교의 찬란한 미래가 되리라 믿습니다.

다시 한번 개교 78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우리대학이 앞으로도 열정과 혁신으로 사회에 희망을 전하는 명문으로 거듭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제41대 바름 총동아리연합회 정학생회장 김승준



안녕하십니까, 제41대 바름 총동아리연합회 회장 경영학부 21학번 김승준입니다. 올해로 개교 78주년을 맞이한 서경대학교의 발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오랜 시간 서경대학교의 소식과 변화를 담아내며, 학교 구성원 모두에게 소통의 장을 열어준 서경대학교 신문사의 깊은 노고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경대학교는 1947년 개교 이래 시대의 변화 속에서도 교육의 본질을 지키며 혁신을 이어왔습니다. 그 여정 속에서 서경대학교 신문사는 늘 학교와 구성원을 잇는 든든한 다리로서 대학의 성장과 발전을 기록해 왔습니다. 교내의 다양한 목소리를 담고 학교의 방향성을 함께 고민하며 서경 공동체의 발전에 이바지해 주신 점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개교기념회는 단순한 기록이 아니라 지난 78년의 역사와 구성원들의 열정이 담긴 소중한 결과물입니다. 이 지면을 통해 우리 대학의 과거를 돌아보고 현재를 성찰하며 더 나은 미래를 그려 나가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서경대학교는 올해 많은 것이 바뀌는 시기였다고 생각합니다. 저 또한 어려움이 많았으나 그만큼 얻어가는 것들이 많았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한 걸음 나아가기 위한 고난과 역경일 뿐, 결코 넘을 수 없는 장애물이 아닙니다. 도약을 위한 준비이며, 우린 앞으로 계속 나아가길 수 있습니다. 모든 서경인들이 날개를 펼쳐, 세계로 나아가길 수 있는 날까지 응원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서경대학교의 개교 78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서경대학교의 개교 78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한영균 (서경대신문 주간)



서경대학교의 개교 78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이러한 뜻깊은 자리에 학내 구성원의 한 명으로, 또 신문사 주간으로서 축하 말씀을 드릴 수 있음에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 대학은 1947년 10월 22일 서울시 중구에서 설립된 이래, 80여 년을 거쳐 많은 변혁과 눈부신 발전을 이루었고, 이제 드높은 위상을 자랑하며 서울의 중심에 우뚝 서 있습니다. 교직원들 비롯해 모든 학내 구성원이 한마음으로 매진한 결과, 우리 대

학은 교육 시스템을 혁신하고 우수한 인재들을 배출하며 지역사회 발전에도 기여해 왔습니다. 실용과 혁신을 학교가 생각하는 최고의 가치로 삼고 있는 만큼, 대한민국의 역동적인 사회 수요의 변화에 빠르게 적응하여 경쟁력을 높이고 학생의 미래를 생각하는 마음으로 학교 발전에 힘써 왔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현재의 결과에 만족하지 않고 앞으로도 우리 대학의 학교 발전을 위한 노력은 지속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미 2000년대 들어 학령인구의 감소로 인한 대학의 위기가 화두가 된 이래, 교육 정책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많은 대학들이 혼란과 어려움 속에 고심하는 가운데, 도전과 혁신을 두려워하지 않는 우리 대학은 신속하게 대응하며 경쟁력을 높여 왔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대학이 위기를 기회로 삼아 내실을 공고히 하고 대학의 위상과 입지를 더욱 높여갈 것을 기대합니다.

이러한 발전의 과정에 앞으로도 우리 서경대신문

이 함께 하겠습니다. 지난 70여 년간 우리 대학의 역사와 함께해 온 서경대신문은 대학의 눈과 귀가 되어 학내외 곳곳의 정보와 소식들을 전달하고 우리 학생들의 목소리를 대변해 왔습니다. 서경대신문도 대학과 함께 노력하며 언론의 소임을 다할 것이며, 우리 대학이 교육적 가치를 창출해 나가며 더욱 높이 도약하는 현장을 생생히 전해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편집장 김나연



안녕하세요, 서경대학교 신문사 제69대 편집장 아동학과 22학번 김나연입니다. 먼저 서경대학교 개교 78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개교기념 축사를 작성한 지도 벌써 3년째입니다. 수습기자이자 정기자, 부편집장을 거쳐 편집장으로서 개교기념 축사를 작성하게 돼 영광입니다.

저는 시도와 도전을 좋아합니다. 물론 체력이나 의지가 받쳐주지 않아 쉽게 포기할 때도 있지만, 그래도 '어 저거 해보고 싶은데?' 하는 것은 웬만해서는 이뤄내는 사람이라고 스스로는 생각합니다. 학창 시절, 대학교에 가면 대학생으로서 할 수 있는 것은 다 해보는 것이 제 소원이었던 소원이었는데, 본교에 들어와 서경대 신문사에서 기자로 활동하며 학생 때 마음먹었던 것처럼 하고 싶은 거의 다 이뤄냈습니다.

때로는 이렇게 하고 싶은 것만 하고 살아도 되나 걱정이 앞서기도 합니다. 그러나 제가 한 모든 경험이 하나둘씩 모여 연결돼 언젠가는 '나' 를 이루는 밑바탕이 될 것이라 믿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곳에서 경험하고 있는 모든 것은 쓸모없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후일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이 될 지금, 이 순간을 조금 더 사랑하고 아껴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이곳을 도전하고자 하는 것을 모두 이를 성장의 발판으로 삼을 수 있는 것은 늘 묵묵히 학교를 위해 힘써주시는 학교 관계자분들이 계시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모든 서경인들이 서로의 자리에서 함께하며 더욱 발전하는 우리대학이 되길 바랍니다.

이만 말을 마치며, 다시 한번 서경대학교의 개교 78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이 글을 읽는 독자 여러분도 늘 활달하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편집장 윤정현



안녕하십니까, 발로 뛰는 지성 언론 서경대학교 신문사 제69대 부편집장 전자공학과 22학번 윤정현입니다.

서경대학교가 지난 10월 22일, 개교 78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본교는 수많은 학생들의 도전과 성장, 그리고 새로운 가능성으로 채워져 왔습니다. 대학이 걸어온 발자취 속에는 교수님들의 헌신, 선배들의 열정,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배우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의 노력이 스며 있습니다.

이한열 열사는 "사람의 마음은 하늘과 같아서 가두려 해도 가둘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 말처럼 대학은 언제나 자유로운 생각과 따뜻한 마음이 흐르는 공간이어야 합니다. 정답보다 질문을, 경쟁보다 협력을, 그리고 두려움보다 희망을 선택하는 곳입니다.

서경의 78년은 그런 마음으로 쌓인 시간입니다.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서로를 북돋으며, 새로운 길을 함께 만들어온 청춘들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 시간이 있었기에 오늘의 서경이 존재하며, 내일의 서경 또한 더 단단히 자리잡 것일 겁니다.

이 가을, 본교의 나무들이 또 한번 새로운 잎을 피우듯 우리 모두의 시간이 자리잡고 있습니다. 과거가 씨앗이 되어 오늘을 피우고, 오늘을 우리가 내일을 만들어갑니다. 서경의 역사는 개인의 발자국이 모여 이룬 우리 모두의 길입니다. 서로의 걸음을 기억하고 응원하는 일, 그것이 진정한 대학 공동체의 시작일 것입니다.

10월 22일, 개교의 의미를 다시금 되새기며 서경의 다음 78년이 더욱 단단하고 따뜻한 길 바랍니다. 그 길에 함께할 모든 학우분들께 진심 어린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부장 김나연



안녕하십니까, 서경대학교 신문사 제68기 사회부장 글로벌비즈니스어학부 일어전공 23학번 김나연입니다. 서경대학교의 개교 78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벌써 세 번째로 개교기념 축사를 쓰게 되었네요. 처음 수습기자로서 축사를 맡았을 때, 부족한 제가 학교를 대표해 글을 쓴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을 만큼 영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때의 벅찬 마음은 사회부장이 된 지금도 변함 없습니다. 지난 3년간 기자로 활동하며 학교의 다양한 모습을 가까이에서 지켜보면서, 서경대학교의 지속적인 발전과 운영을 위해 얼마나 많은 분들의 헌신이 깃들여 있었는지를 새삼 느끼게 됩니다.

아침 일찍 발 디딜 틈 없는 버스를 타고 등교해 수업을 듣고, 공강 시간에는 편의점에서 간단히 요기를 때운 뒤 다시 강의실로 향하고, 긴 줄을 기다려 버스를 타고 집으로 돌아가는 하루, 우리는 이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이들의 손길을 지나쳤을까요? 학우들이 도착하기 전 먼저 교실 문을 열어주는 분, 북악관 앞을 정리하며 안전한 등굣길을 만들어주는 분, 유담관 앞 낙엽을 정성스레 쓸어내는 분, 수업 자료를 준비하고 과제를 점검하는 교수님과 조교님, 편의점 앞 쓰레기통을 묵묵히 비우는 분까지, 평범해 보이는 서경대의 하루는 이처럼 보이지 않는 수많은 이들의 노력으로 완성됩니다.

이렇듯 서로의 자리를 지키며 하루를 쌓아가는 모습이 바로 서경대의 진정한 힘이라 생각합니다. 보이지 않는 노력이 모여 오늘의 서경을 만들었듯, 앞으로도 우리 모두의 열정이 모여 더 빛나는 내일을 만들어가리라 믿습니다.

다시 한번 서경대학교의 개교 78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하며, 모든 서경인들의 앞날에 행복과 성장이 함께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수습기자 김호성



안녕하십니까! 서경대학교 신문사 제70기 수습기자 미래융합학부 1 25학번 김호성입니다. 축사에 앞서 서경대학교 개교 78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오랜 전통을 바탕으로 78년이라는 세월 동안 눈부신 발전을 이뤄낸 역사에 경의를 표합니다.

10월은 가을의 계절이자 한 해를 돌아보게 만드는 시기입니다. 입학 당시에는 차가운 겨울바람을 맞으며 등교했습니다. 이후 뜨거운 여름을 지나 선선한 가을이 되니 올해가 얼마 남지 않았음을 실감하게 됩니다.

저는 전역 후 늦깎이 새내기로서 1년을 보내고 있습니다. 올해를 되돌아보면 국방부 시계와 달리 서경대학교 시계는 굉장히 빠르게 느껴집니다. 군인의 삶은 매번 비슷한 일과와 명령에 복종해야 합니다. 이와 달리 대학생은 자유를 가지지만 더 많은 책임감을 짊어 집니다.

지금까지 서경대학교에서의 삶은 '배움' 과 '증명'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수강한 강좌를 통해 훌륭한 교수님 지도 아래 다양한 지식과 인생에 대해 배웠습니다. 이후 습득한 지식을 바탕으로 스스로를 증명하며 성장하고 있습니다.

신문사 또한, 항상 증명하는 곳이라 생각합니다. 신문사 활동을 통해 학교 소식은 물론, 사회 이슈를 다루며 책임감을 가지고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려 노력하는 중입니다.

끝으로, 서경대학교 개교 78주년을 다시 한번 축하합니다. 앞으로도 서경대학교가 더욱 찬란한 미래를 향해 나아가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수습기자 심화평



안녕하십니까, 서경대학교 신문사 제70기 수습기자 아트엔테크 놀로지학과 25학번 심화평입니다. 먼저, 서경대학교의 개교 78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신문사의 일원으로서 이번 개교기념 축사를 작성할 수 있어 영광입니다.

입학했을 때가 엇그제 같은데, 벌써 가을이 찾아오니 감회가 새롭습니다. 올해 수습기자로 들어와 589호부터 시작해 지금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다시 돌아보니 뿌듯하고 감사했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게 어색하고 신문사의 체계를 지키지 않을 때도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때마다 친절하게 설명해 주신 편집장님과 사회부장님께 정말 감사하다는 말 전하고 싶습니다. 두 분과 부편집장님, 든든한 동지인 70기 수습기자들을 만나 한 층 더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요즘 제 머릿속에 자리 잡은 단어는 '꾸준함' 입니다. 실력을 기르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끊임없이 연습하고, 반복하는 꾸준함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신문사 활동을 하면서 솔직히 힘든 순간도 있었고, 부담될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또한 지나가리라"라는 격언을 마음속에 새기며 신문사의 도움이 되기 위해 정진해야겠다는 마음이 계속 듭니다.

아직 이곳에 1년도 채 되지 않았습니. 그럼에도 서경대학교에는 학우들을 위해 힘써주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보이는 곳,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는 모든 분께 감사하다는 말 전하고 싶습니다.

다사다난했던 올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 다시 한번 개교 78주년을 축하드리며, 이 글을 읽으시는 독자분들도 한 해 잘 마무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습기자 유승윤



안녕하십니까, 서경대학교 신문사 제70기 수습기자 미래융합학부 1 25학번 유승윤입니다.

우선 서경대학교의 개교 78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78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언제나 묵묵히 존재한 학교와 이 순간을 가능하게 한 교직원, 학우 여러분에게도 수고하셨습니다. 말씀은 전합니다.

또 이 자리를 빌려 편집장님과 부편집장님, 사회부장님과 동기를 그리고 새로운 동료분들에게 감사하다는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언제나 열정적이고 화목한 신문사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정말 감사드립니다.

제가 수습기자로 활동을 시작한 지 벌써 한 학기가 넘어 이제는 일 년이라는 상징적인 숫자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어색하고 낯설었던 기사 작성은 어느덧 일상에 스며든 친구가 됐습니다.

이제는 막연했던 대학 생활도 점점 익숙해지는 시기가 된 것 같습니다. 지각을 걱정해 마음을 졸이던 통학이 어느새 눈감고도 돌아다닐 수 있을 만큼 편해졌습니다. 막막하기만 했던 시험공부도 이제는 어느 정도 감을 잡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람이 변하는 만큼 학교도 다양한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이번에 진행된 다양한 공사와 교육의 변화 등 이것들 외에도 78년 동안 학교는 수많은 변화를 헤쳐왔을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다시 한번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과거에도 미래에도 그리고 지금도 언제나 서경대학교의 일원으로서 존재하시는 모두에게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서경대학교의 발전과 영광을 기대하겠습니다.

수습기자 김서연



안녕하세요, 발로 뛰는 지성 언론 서경대학교 신문사 제70기 수습기자 미래융합학부 2 25학번 김서연입니다. 먼저 서경대학교의 개교 78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서경대학교 신문사의 일원으로서 축사를 작성할 수 있게 돼 매우 영광입니다.

입학이라는 설렘을 가득 안고 등교했던 봄과 동기들과 함께 신나게 여행을 계획하던 여름을 지나 벌써 선선한 가을이 찾아왔습니다. 학교 곳곳을 둘러보며 빠르게 적응하려고 노력한 1학기와는 달리 이제 신문사의 일원이 된 지금은, 매일 보던 학교의 모습이 새삼 새롭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짧은 시간 동안 학교에 다니면서 느낀 것은 자세히 살펴볼지 않으면 모르는, 본교를 위해 힘써주시는 분들이 곳곳에 존재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오늘 하루만큼은 본교를 위해 힘써주시는 분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해보고 싶을 것 같습니다.

저에게 신문사는 새로운 도전이었습니다. 처음엔 '왜 내가 후회하지 않고 즐겁게 할 수 있을까?' 라는 걱정이 커서 지원을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모집 마지막 날, 신문사에 지원하지 않는다면 더 큰 후회를 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에 지원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신문사의 일원이 된 지금은 신문사 지원을 망설였던 시간이 아쉬울 만큼 즐겁고 알찬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니 학우 여러분도 서경대학교에서 도전을 멈추지 않으려 자신만의 길로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학우 여러분의 대학 생활이 인생의 소중한 한 페이지로 남기를 바라며 다시 한번 서경대학교의 개교 78주년을 축하합니다.

수습기자 송재이



안녕하십니까, 서경대학교 신문사 제70기 수습기자 미래융합학부 1 25학번 송재이입니다. 설렘을 안고 대학 생활을 시작했던 날이 엇그제 같은데, 벌써 7개월이라는 시간이 흘러 가을풍경과 마주했습니다. 처음 캠퍼스에 들어섰을 때 설렘과 기대는 이제 배움에 대한 열정으로 바뀌어, 저만의 길을 찾아갈 수 있도록 이끌고 있습니다.

그 시간 동안 저는 서경대학교에서 삶의 깊이를 더하는 귀한 경험을 쌓았습니다. 풀잎봉사단과 함께한 여정 속에서 함께하는 가치를 배우고, 다양한 배경을 가진 이들과 마음을 나누는 법을 경험했습니다. 그 중 특히 교내 신문사 활동을 통해 크게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익숙하지 않았던 여러 분야의 기사를 직접 기획하고 작성하며, 폭넓은 지식을 습득해 세상을 더 넓게 이해할 수 있게 됐습니다. 또한, 저를 위해 해주신 조언을 양분 삼아 기사를 완성해 나가는 과정에서 느낀 보람은 학교가 제게 준 선물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학술정보관에서 다 같이 모여 공부했던 날도, 본격적으로 해냈던 조별 과제도, 때로는 캠퍼스 곳곳에 마련된 공간들에서 나뉘던 대화들도 소중한 추억으로 기억될 것일 겁니다.

78년의 깊은 역사를 자랑하는 서경대학교의 전통은 수많은 서경인의 열정과 노력이 만들어낸 자랑스러운 유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또한 이 소중한 전통을 이어받아, 학교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자랑스러운 서경인으로 성장하려 합니다. 다시 한번 서경대학교의 개교 78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하며, 앞으로의 무궁한 발전과 영광을 기원합니다.

수습기자 오연우



안녕하세요, 서경대학교 신문사 제70기 수습기자 미래융합학부 2 25학번 오연우입니다.

서경대학교 개교 78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이번 개교 기념호를 통해 새내기 벅찬 마음을 전하게 된 것을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입학 전부터 전문 분야에서의 명성을 들어왔던 저에게 우리대학 입학은 미래를 꿈꿔볼 수 있는 시작점이었습니다.

1학기를 보내며 캠퍼스 곳곳에서 느껴지는 실천적 열정을 체감했습니다. 특히 본교 오케스트라 공연을 관람했을 때, 우리대학은 '현장감이 살아 숨 쉬는 학교' 라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무대 위 학생들의 눈빛과 연주에서 느껴지는 진심은 '나도 이곳에서 무언가를 이루고 싶다' 라는 열망으로 이어졌습니다.

또한 과 대표로 활동하며 서경대는 단순히 위계적 구조가 아닌, 학생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학교임을 느꼈습니다. 전체학생 회의에서 작은 의견 하나도 진지하게 논의하며 과반수로 투표로 결정되는 과정을 보았고, 모두가 함께 일거리는 참된 공동체임을 깨달았습니다. 위의 경험을 통해 저 역시 단순히 수업만 듣고 돌아가는 학생이 아닌, 능동적인 학생으로 성장해야겠다 다짐했습니다.

학교의 가치를 기록하는 수습기자로서의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발로 뛰어 활동하는 과정 속에서 능동적인 인간이 되자는 초반의 초심을 되돌아보는 거 같습니다.

앞으로도 우리대학의 숨겨진 혁신과 감동적인 이야기를 공정하게 보도하며, 학우들과 학교를 잇는 정직한 목소리가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개교 78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서경대학교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수습기자 이요한



안녕하십니까, 서경대학교 신문사 제70기 수습기자 미래융합학부 2 25학번 이요한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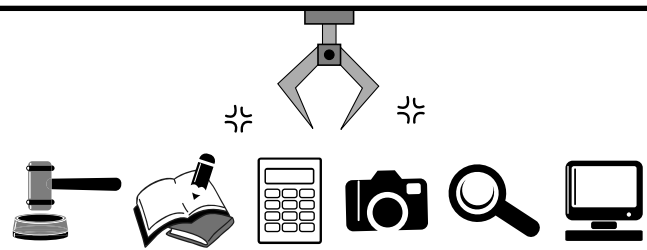
어느덧 가을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서경대학교는 올해로 78번째 가을을 맞이했습니다. 78년이라는 긴 세월을 지나온 서경대학교를 축하하는 자리 속, 재학생으로서 그리고 신문사 수습기자로써 함께 할 수 있어 영광입니다.

대학 원서를 접수하고 합격 발표를 기다리던 시간이 엇그제 같은데 어느새 두 학기가 지나갔습니다. 대학에 갓 입학한 새내기로서 설렘이 가득했지만 동시에 모든 것이 서툰 어색했습니다. 정든 동네와 가족 곁을 떠나 학교생활을 하다 보니 잠시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런 저에게 어머니께서 "넌 잘하고 있어"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한마디가 힘들 때마다 마음을 다잡고 하루하루 견딜 수 있는 원동력이 됐고, 시간이 지나 어느새 학교생활에 적응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학교생활을 하며 열정 넘치시는 교수님들을 만나 뵈고, 친절하게 반겨주시는 교직원분들 그리고 신문사 선배님들과 동료 기자분들, 함께 의지할 수 있는 동기들을 만났습니다. 이렇듯 서경대학교를 통해 좋은 인연 만들고 추억을 쌓을 수 있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저는 올해 큰 도전을 했습니다. 바로 서경대학교의 유일한 언론기관인 서경대 신문사에 수습기자로써 활동하게 됐습니다. 서경대학교 곳곳을 취재하며 다양한 분들이 서경대학교의 발전과 번영을 위해 힘쓰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지난 78년간 서경대학교의 발전과 이룩 뒤엔 앞선 선배님들과 학교 구성원분들의 노고 있었음을 깨달았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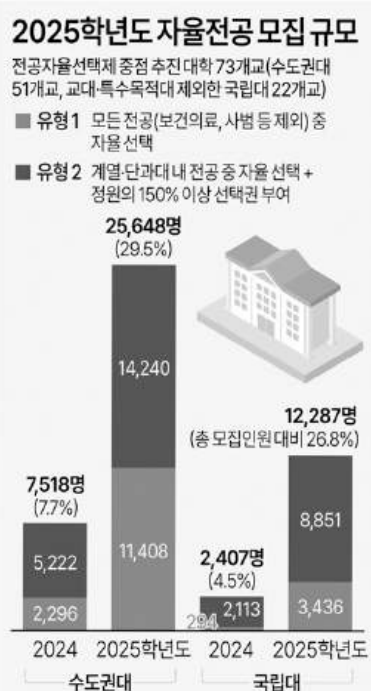
다시 한번 서경대학교의 개교 78주년을 축하하며 무궁한 발전을 이룩하는 서경대학교가 되길 기원합니다.



내 전공은 어디에?

자율전공제도의 '명과 암'

'자유' 라는 이름 뒤에 숨겨진 제도의 이면



▲ 출처 : 교육부,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자율전공학부의 확대는 단순히 새로운 학과의 등장이 아니라, 대학의 운영 방식 자체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중대한 변화이다. 2009년 일부 대학에서 '자유전공학부'라는 이름으로 시범 운영된 이래, 2025학년도부터는 교육부가 수도권 대학은 20%, 국립대는 25% 이상을 무전공으로 선발해야 수천억 원 규모의 정부 인센티브 사업비를 지원하며 전국적 확산을 유도하고 있다. 이는 학령인구 급감으로 인한 대학 구조조정 압박 속에서, 고등교육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려는 정부의 전략적 조치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정책적 기초 속에서 자율전공학부는 대학과 학생 모두에게 '필요한 제도'로 인식되고 있다. 학생 입장에서는 전공 선택의 유연성이라는 달콤한 유혹이 작용한다. 빠르게 변화하는 산업 환경 속에서 진로를 확신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일단 무전공으로 입학해 천천히 탐색하겠다"는 선택이 합리적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대학은 이와 같은 상황을 정원 확보의 기회로 삼고 있다. 특히 학령인구 감소로 인한 재정난을 겪는 대학들에게 자율전공학부는 생존 수단이자 정부 인센티브 확보의 열쇠로 여겨진다. 정부 역시 대학 붕괴를 막고 고등교육의 유연성을 확보하기 위해 제도 확산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제도의 도입 취지와 달리, 대학 현장의 운영 실태는 이상과 거리가 멀다. 자율전공 학생들을 위한 체계적인 전공 탐색 프로그램이나 진로 상담 시스템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은 대학이 대부분이다. 우리 대학의 경우에도 '전공 탐색'이라는 명목으로 일부 교양 수업이 개설되 있지만, 실질적인 진로 설계나 전공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기에는 역부족이다. 실제로 이견일 학우(미용125)는 "학교에 다니면서 진로 설계 전담 멘토나 진로 체험 과목의 존재를 거의 체감하지 못했다"며 "전공 연계 교양 수업도 명확히 운영되지 않아 아쉬웠다"고 전했다.

이처럼 '탐색의 자유'라는 제도의 이상은 현실 속에서 '방향 상실감'으로 이어지고 있다. 또한 전공을 선택할 수 있다고 홍보됐지만, 현실에서 학생들은 '자유'라는 이름 뒤에서 전공을 정취하기 위해 생존경쟁을 벌이고 있다. 학생들은 졸업 후 취업에 유리한 경영, IT 계열을 집중적으로 선택할 것이고, 뽑을 수 있는 정원은 전공별로 정해져 있어 결국 성적 커트라인이 형성돼 학점 경쟁이 심화된다. 이 학우도 "내가 선호하는 학과에 지원하는 학우들이 많기에 경쟁적으로도 약간의 부담을 느꼈다"고 답했다.

결국 자율전공학부는 제도 취지와 현실 사이에서 균열을 보이고 있다. '전공 선택의 자유'가 진정한 의미를 갖기 위해선, 학생들이 방향을 잃지 않도록 돕는 체계적인 전공 탐색 프로그램과 진로 설계 시스템이 실행되어야 한다. 지금처럼 정원 확보와 인센티브 중시의 제도로 머문다면, 자율전공학부는 자유의 제도라기보다 또 다른 경쟁의 출발점으로 남게 될 것이다.

최근 대학가는 '무전공 입학제도' (이하 자율전공학부) 확대라는 변화의 물결을 맞고 있다. 우리대학을 포함한 여러 대학이 잇따라 자율전공학부를 신설하거나 모집 인원을 늘리고 있다. 자율전공학부란 입학 시 전공을 선택하지 않고, 일정 기간 탐색 기간을 거친 후 선택하는 제도이다. 학생으로서는 전공 선택의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되고, 대학은 학령인구 감소 속에서도 정원 확보에 유리하다는

자율전공의 최전선에서 묻다... 반년 동안 다녀보니



▲ 출처 : 청원대신문

알아봤듯, 자율전공의 좋은 점도 있지만 학생들이 느끼기에 아쉬운 점과 불만도 있다. 학생들의 진솔한 이야기를 듣어보기 위해 기자는 우리대학 학우와 타 대학 학우를 만나 얘기를 나눠봤다.

[재학생 인터뷰]
- 오근백 학우 (미용125)

Q. 우리대학 미래융합학부를 선택한 이유는?
A. 다양한 전공 중에서 나에게 맞는 전공을 선택하기 위함이었다.

Q. 현재 미래융합학부에서 어떤 프로그램이나 수업을 듣고 있는지? 그 중 인상적인 것은 무엇인지?
A. 전공탐색세미나, 진로설계세미나 등 다양한 수업을 듣고 있는데, 전공탐색세미나의 강의에서 다양한 전공의 교수님들이 오셔서 전공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해 주신 것이 가장 인상 깊었다.

Q. 어떤 전공 분야에 관심을 갖게 됐나? 전공 탐색 과정에서 가장 도움이 된 활동이나 상담은 무엇이었나?
A. IT관련 전공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됐다. 이것 또한 소프트웨어학과 교수님이 오셔서 전공에 대해 설명해 주신 것이 가장 도움이 됐다.

Q. 미래융합학부로서 겪는 어려움이나 아쉬운 점이 있다면?
A. 전공에 대한 설명만 있어 자세한 게 알기 어렵다. 다른 전공을 체험하는 수업이라도 있으면 좋겠다.

Q. 내년에 입학할 미래융합학부 후배들에게 조언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A. 아직 전공 선택에 대한 확실함이 없다면 들어와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체험해 보면 좋겠다. 이것이 전공 선택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

[대학생 인터뷰] - 익명(20·남)

Q. 자율전공학부를 선택한 이유와 입학 전 고민이 있었다면?
A. 고등학교 때까지 마땅히 진로를 찾지 못해서 자율전공학부를 통해 찾아보고 싶은 마음에 선택했다. 한 학과를 결정해서 갔다가 적응을 못 할까 두렵웠다. 그에 비해 자율전공은 여러 과목을 선택하고 고를 수 있어 차선책이

될 거 같았다.
Q. 현재 자율전공학부에서 어떤 프로그램이나 수업을 듣고 있는지? 그 중 인상적인 것은 무엇인지?
A. 인성세미나가 기억에 남았다. 특히, 인성세미나에서 지도교수님과 1:1 상담을 통해 진로설계와 대학 생활에 대해 들을 수 있어 좋았다. 후에 PT대회를 개최해 개인이 살펴본 전공과 진로에 대해 볼 수 있었던 것도 인상적이었다.

Q. 현재 자율전공학부로서 겪는 어려움이나 아쉬운 점이 있다면?
A. 선택의 폭이 너무 넓어 전공을 정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다양한 수업을 자유롭게 들을 수 있지만, 학점 제한이 있어 한정된 과목만 수강해야 해서 오히려 고민이 깊어지는 것 같다.

이렇듯 학생들은 자율전공 및 미래융합학부에서 다양한 전공을 탐색하지만, 정보와 체험의 한계로 혼란과 불안도 겪고 있다. 진로 설계 프로그램이나 1:1 상담 등 도움을 주는 프로그램도 있지만 실제 수업이나 학점 제한 등의 아쉬움도 존재한다. 이처럼 자율전공제도의 장단점이 명확하기에, 학생들에게 실질적으로 다가갈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해 보인다.

이 전공 아님 저 전공?... 전공 쏠림 현상을 알아보자



▲ 출처 : 게티이미지뱅크

앞서 자율전공에 대한 학생들의 다양한 의견을 살펴봤을 것이다. 이번에는 학생들이 2학년에 선택하게 될 전공과 전공 쏠림 현상에 대해 알아보자. 우리대학은 2025학년도부터 예체능 계열 및 특수·첨단학과를 제외한 신입생 100%를 미래융합대학에 속해있는 △미래융합학부1 △미래융합학부2 △자유전공학부로 모집했다. 무전공 신입생들은 입학 후 1년 간의 전공 탐색 과정을 거쳐 2학년 진학 시 전공을 선택하게 된다. 이때 자율전공학부로 입학한 신입생들은 별도의 제한 없이 미래융합학부1, 2의 모든 전공을 선택할 수 있고 미래융합학부1, 2 신입생들은 그들이 속한 학부 내에서만 선택이 가능하다.

먼저 미래융합학부1에 속해있는 전공을 알아보자. △경영계열(글로벌비즈니스전공, 인텔리전트비즈니스전공) △비즈니스영어전공 △비즈니스일어전공 △비즈니스중어전공 △비즈니스불어전공 △IT(컴퓨터소프트웨어전공, AI빅데이터전공) △파이낸스엔테크전공 총 7개의 전공이 존재한다. 다음으로 미래융합학부2에 속해있는 전공을 살펴보자. △IT 계열(인텔리전트컴퓨터전공, 인텔리전트다바이스전공) △공공행정전공 △도시계획공학전공 △아동청소년교육전공 △토목건축전공 △환경화학공학전공 △경찰행정전공 총 7개의 전공이 속해있다. 미래융합학부1, 2 재학생들은 △FYP(First Year Program) 포인트 70% △모의토익 20% △교과성적 10%를 100점 만점으로 환산해 점수와 희망 전공 순위의 비교를 통해 2학년 때 전공을 배정받는다. 이처럼 미래융합학부1, 2의 학생들은 자신이 원하는 전공을 100% 보장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특정 전공에 대한 선호가 곧 치열한 경쟁으로 이어지고 전공 쏠림 현상이 나타난다. 현재 전공 쏠림 현상이 가장 눈에 타날 것으로 예상되는 전공은 IT 계열

전공이다. 이는 IT 계열이 인공지능과 로봇 등 현재 가장 주목받고 있는 분야와 직접적으로 연결되고 이과의 성격이 강하게 띠고 있어 취업에 도움 될 것이라는 학생들의 생각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아무리 완벽한 제도라고 하더라도 언제나 허점은 존재한다. 2학기 휴학을 진행하고 2학년 1학기로 복학할 때 2학년 전공 배정 시 받는 불이익이 바로 그것이다. 2학기를 휴학한 학생들은 1학년 1학기의 학교생활로만 점수를 계산해 전공 배정에 적용하기에 희망 전공 배정이 어려울 수 있다. 물론 학교생활과 전공 배정 기준에 대한 공정성을 위한 것이지만 피치 못할 사정으로 휴학을 진행해야 하는 학생들에게 부담될 가능성이 높다. 전공 쏠림 현상이나 피치 못할 사정으로 생기는 불이익 등 새로운 제도의 도입과 그 과정에서 생기는 부작용은 너무나 당연하고 또 빠르게 해결되어야 한다. 자율전공제에서 생겨나는 다양한 문제를 차근차근 보완해 나간다면 학생들에게 더욱더 만족도 높은 학교생활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자율전공의 그림자... 어떻게 개선할 수 있을까?



▲ 출처 : 대학지성

자율전공은 전공을 바로 선택하지 않아도 되고 다양한 전공을 탐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그 때문에 혼란이 올 수도 있다. 재학생들이 언급한 개선점과 우리대학과 타 대학에서 어떤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지 알아보았다. 우리대학은 이러한 단점 보완을 위해 미래융합대학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양 수업인 '진로설계 세미나' 강의를 개설하고, 교수들을 통해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멘토링 활동을 진행한다. 희망 학과에 재학 중인 선배와 상담을 진행해 진로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선배자문단'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또한 학생들의 대학생활 적응력 향상과 전공 탐색을 위한 합숙형 프로그램을

'Major Design Camp'를 운영했다. 또한, 우리대학은 '마이크로디그리 과정과 복수전공을 통해 자율전공학부 학생들의 진로를 맞춤 설계할 수 있다. 이와 비슷하지만 다른 사례로는 자율전공학부 재학생들을 위해 '자기주도설계' 전공프로그램을 운영 중인 '삼육대학교'가 있다. 삼육대 학생들은 1학년 때 적성검사 및 맞춤형 교과목을 통해 2개 이상의 전공을 융합하는 전공 설계를 제공받는다. 이에 더해 대학교 자체 AI 시스템을 활용해 2학년년부터 졸업까지 학생 맞춤형 교육을 설계하며 지속적인 도움을 제공한다. 그럼에도 "전공에 대한 설명만으로 전공을 탐색하기 어렵다", "다른 전공을 체험하는 기회가 마련되면 좋겠다" 등의 본교 재학생 의견이 존재한다. 직접적인 체험의 부재가 전공 결정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다. 이를 보완한 사례로 '한남대학교'가 있다. '한남대학교'는 자율전공학부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전공체험박람회'를 개최해 다양한 학과를 체험하는 기회를 마련하고, 교수들과의 멘토링 활동을 통해 진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었다. 설명뿐만 아닌 체험과 참여를 통한 학습의 기회를 마련한 사례다.

제도뿐만 아닌 물리적 한계 또한 존재하는데, 공간 부족이 그 대표적인 예다. 우리대학은 '스콘라운지'와 미래융합대학 재학생을 위한 시설인 '카페 MD' 등의 시설을 제공하고 과방 공사에 들어가는 등 학생들의 편의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비슷하게 '서강대학교'도 학부연구실과 과방 시설이 부족한 문제가 있어, 건물을 개조해 시설을 늘리기도 했다. 다양한 전공을 탐색하고 적성을 찾는 본래 취지대로 운영하려면 앞선 글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구조화된 지원 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대학들은 자율전공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과 프로그램을 운영해 발전시키고 있다. 앞으로 제도는 학생을 중심으로 더 발전해야 한다. 교육은 제도가 아닌 사람을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1). 산업체 수요 맞춤형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최소 단위 학점을 이수하면 이수 내역을 인증하는 단기 실무형 교육 과정

'자율전공제도'는 다양한 전공을 체험하고 탐색하며 본인의 적성을 찾아 전공을 선택할 수 있는 좋은 제도다. 하지만 자율전공제도를 실행하는 시스템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았다면 그것은 학생들을 방황하게 만들 수 있다. 자율전공의 특성상 인기 학과에

쏠림 현상이 발생하고, 선후배 간 교류와 학과 정보, 유대감 등이 부족해 학과와 전공을 정하고 학교에 입학한 상황보다 더 쉽게 고립될 수 있다. 미래 융합형 인재를 양성한다는 포부를 가지고 대학에 자율전공 설치를 적극적으로 권유하는 정부, 정부로부터 지원받기 위해 자율전공을 설치해

운영하는 학교, 정부와 대학은 단순히 본인들이 운영하기 쉬운 시스템이 아닌, 학생들이 중점이 되는 자율전공제도를 잘 구축해 운영하고 있는지 되돌아봐야 한다. 자율전공제도는 단순히 선택의 시점을 늦추는 제도가 아니다. 대학은 학생들을 자유라는 이름 속

에 방임하는 것이 아닌 학생들이 길을 찾아갈 수 있는 시스템을 운영해 길잡이의 역할을 해줘야 한다. 다양한 전공을 체험하며 적성을 찾아가고 학생들이 자신의 선택으로 앞으로 나아가는 제도의 본질에서 벗어나지 않았는지 생각해 봐야 한다. 자율전공제도 초기에는 여러 문제가 존재했다.

하지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공 선택을 돕는 진로 설계 프로그램과 적성 검사, 학과 선배와 교수와의 멘토링 등 다양한 활동을 진행하며 꾸준한 개선과 발전을 이루고 있다. 이처럼 학생들이 우선이 되는 제도로 운영되길 소망하며, 이에 맞춰 대학이 함께 발걸음을 맞춰서 나아가길 바란다.

달은 여전히 그 자리에... 현장에서 마주한 추석의 얼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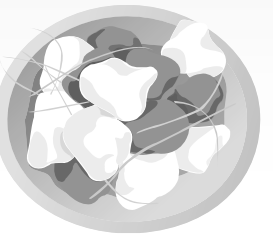
2025년 10월 6일 월요일 휘황찬란한 보름달이 어김없이 떠올랐다. 민족 대명절인 추석이 찾아온 것이다. 수확의 풍요와 가족의 안녕을 기원하며 온 가족이 울려다보던 저 달, 한가위의 상징은 수백 년의 세월을 함께하며 변함없이 우리의 걸을 지키고 있다. 예로부터 추석은 햅쌀과 햇과일로

조상께 감사를 올리는 차례를 지내고, 흠어졌던 가족이 한자리에 모여 정을 나누는 가장 큰 명절이었다. 또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는 속담처럼 추석은 풍요와 행복의 대명사였다. 그러나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우리가 마주하는 추석의 풍경은 사뭇 다르다. 수백만 명이 고향을 향해 차

를 몰던 '민족 대이동'의 장관은 이제 공항 출국장 인파와 KTX 역의 짧은 귀성 행렬, 그리고 수많은 '나 홀로 가구'의 고요함으로 분화되고 있다. 누군가는 차례상 대신 해외 휴양지의 저녁 식사를 선택하고, 누군가는 친지의 덕담 대신 스터디 카페의 백색소음을 택한다. 달은 변함없이

만, 이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모습과 마음은 너무나도 달라졌다. 이러한 변화의 흐름 속에서 우리는 근원적인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다. 과거 공동체의 구심점이었던 명절의 가치는 오늘날 개인에게 어떤 의미로 재해석되고 그 본질적인 의미는 어떻게 진화하고 있는가? 기자들의 개인적인 명절 경험과

변화된 명절의 모습을 통해 시대의 흐름 속에서 명절의 의미를 다시 묻고,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의 명절을 들여다보고자 한다.



변함없는 달과 변화하는 사람들... 추석의 변화를 알아보자



▲ 출처: 게티이미지

전통적인 추석의 핵심은 농경 사회의 질서 속에서 형성된 '감사'와 '공동체'의 가치였다. 가을 추수를 앞두고 한 해 농사의 풍요를 기원하며 조상의 은덕에 감사하는 날, 그것이 추석의 본질이었다.

가족들은 이른 아침부터 햅쌀로 송편을 빚고 햇과일을 정성껏 올려 차례를 지냈다. 이는 단순한 행사가 아닌 유교의 핵심 가치인 '효'를 실천하며 세대 간의 연결고리를 확인하는 신성한 의식이었다.

차례와 성묘가 끝나면 마을은 축제의 장으로 변했다. 달맞이꽃 나간 사람들은 손에 손을 잡고 원을 그리며 강강술래를 돌았고, 장정들은 씨름판

에서 힘을 겨뤘다. 아이들은 고운 색 짙은 새 옷, '추석빔'을 차려입고 온 동네를 누비며 자랑하기에 바빴다. 이 모든 풍경의 중심에는 '가족'과 '이웃'이라는 공동체가 있었다. 명절은 개인의 휴일이 아니라, 가족의 의무를 다하고 공동체의 유대를 강화하는 사회적 장치였다.

오늘날 추석의 풍경은 과거의 모습과는 극적인 단절을 보여준다. 각종 통계는 전통적인 명절의 변화가 얼마나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지 명확하게 드러낸다. 데이터 플랫폼인 픽플리가 9월 25일부터 26일까지 진행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 가구의 62.3%가 추석에 차례를 지내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으며 차례를 지내겠다고 답한 비율은 30.8%에 불과했다.

또 추석 연휴 활동 계획은 '집에서 휴식'이 52.8%로 1위를 차지하고 '본가/시골 방문'이 44.4%로 2위에 머물며 추석 귀성이 개인의 선택으로 받아들여지는 모습을 보였다. 이어서 △친구/지인과의 약속(23.6%) △여행(23.2%) △문화생활(15.7%) △개인 용무 처리(10.5%) 순으로 집계됐다.

이러한 변화는 단순한 의식의 변화를 넘어, 젊은 세대의 무관심으로까지 이어졌다. 10대 응답자의 30.6%, 20

대의 11.3%는 자신의 집이 차례를 지내지조차 '모른다'고 답했다. 이는 차례라는 문화적 코드가 다음 세대로 전승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지표이다.

이처럼 전통적 의무가 흐트러져 가며 새로운 방식으로 명절을 보내는 사람들이 등장했다. '혼족족'과 '추캉스족(추석+바캉스)'이 그것이다. 1인 가구의 폭발적 증가와 함께 명절을 혼자 보내거나 명절 연휴를 이용해 여행을 떠나는 것은 더 이상 낯설거나 부정적인 일이 아닌 수많은 개인의 합리적 선택 중 하나가 됐다.

젊은 세대가 고향 방문을 꺼리고 새로운 방식으로 명절을 보내는 이유는 복합적이다. 이는 단순히 특정 세대의 이기심이나 전통에 대한 무지로 치부할 수 없는, 우리 사회의 구조적 문제와 가치관의 근본적인 변화를 반영한다. 즉 명절 증후군과 같은 정신적인 스트레스부터 개인주의와 합리성을 중요시하게 된 가치관의 변화까지 다양한 이유로 인해 청년들은 더 이상 명절을 의무가 아닌 선택으로 바라보게 됐다.

전역 후 첫 명절, 나를 다시 채운 시간



2025년 추석은 본 기자에게 특별하다. 1년 9개월의 군 복무를 마치고 처음 맞는 민간인으로서의 명절이기 때문이다.

기자의 어린 시절 추석은 항상 조부모님 댁에 방문하는 날이었다. 온 가족이 차례를 치르고 성묘를 다녀온 뒤 맛있는 명절 음식을 먹는 것이 추석 일상이었다. 하지만 23살이 된 이번 추석은 색달랐다.

이제는 부모님 손에 이끌려 움직이는 나이가 아니다. 이번 추석은 조부모님 댁에 방문하는 대신 휴식과 아르바

이트로 연휴를 보냈다. 기자는 평소 축구 경기장 진행을 돕는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다. 이번 연휴에는 성남FC와 서울이랜드의 경기가 있어 탄천종합운동장으로 갔다.

이제는 경기 중 선수가 부상을 당하면 들것을 들고 그라운드로 뛰어가 조치하는 업무를 맡았다. 다행히도 해당 경기에서 모든 선수가 무사히 경기를 마쳐 그라운드로 들어가는 일은 없었다. 대신, 관중석보다 더 가까이에서 경기를 관람할 수 있어 큰 즐거움이었다.

경기는 홈팀인 성남FC가 2대0으로 패했다. 그럼에도 경기 후 성남 선수들이 "수고 많으셨다"고 말을 건네주는 모습이 너무나 감사했다. 아르바이트가 매우 수월하게 끝나 마치 명절 선물을 받는 듯한 기분이었다.

아르바이트 외에는 오로지 나를 위한 재충전의 시간을 가졌다. 이번 연휴는 무척 길었다. 그동안 쌓인 피로와 스트레스를 풀기에 너무나 좋은 시간이었다.

한동안 읽지 못했던 책도 읽으며 여유롭게 휴식을 즐겼다. 군 복무 당시, 추석에는 항상 송편을 비롯해 성심당 빵 등 다양한 부식이 나왔다. 당시에는 체중 관리 차원에서 동기들에게 모두 나눠줬다.

평소 자기관리를 위해 철저한 식단을 하는데 이번 연휴 동안은 식단을 포기했다. 친구들과 술을 마시기도 하고 송편을 비롯해 다양한 명절 음식을 먹기도 하는 등 알차게 치팅데이를 보냈다.

그동안 부족했던 영양소를 채우고 스트레스를 해소하니 너무나도 알찬 추석 연휴였다. 물론, 치팅데이 이후에는 다시 식단과 운동을 병행해야 했다.

연휴가 끝나기 전에 다시 원래의 몸 상태로 돌아오는 것을 목표로 했다. 남은 연휴 동안 매일 수영을 했고, 식단을 엄격히 했다. 연휴 때 워낙 많은 칼로리를 섭취했던 터라 간헐적 단식도 병행했다.

지난 2년간 군대에서 보낸 연휴도 너무나 소중한 시간이었다. 동기와 재밌는 시간을 보내기도, 부모님이 면회를 와서 그리움을 달래기도 했다.

하지만 나에게 올해 연휴가 더욱 더 뜻깊었다. 자유를 가지고 스스로 원하는 방식으로 휴식을 취한 것이 가장 인상 깊은 것 같다. 또한, 맛있는 음식을 많이 먹을 수 있어서 행복했다.

자유를 얻은 만큼 책임감도 커진다. 이번 연휴는 자유에 따른 책임감을 극복해야 진정한 어른으로서 성장할 수 있다는 것 또한, 일깨워줬다.

울산의 추석, 달라진 풍경 속에 이어지는 온기



추석이 다가오면 우리 가족 다섯은 어김없이 울산의 친할아버지 댁으로 향한다. 예전엔 고속도로에서만 여덟 시간을 보내야 했기에, 차 안에서 먹을 간식을 단단히 챙겨곤 했다. 지금은 사정이 달라졌다. 성인 다섯이 승용차에 타기엔 좁아 한 명은 KTX를 이용한다. 서울에서 울산까지 거리가 멀기도 하지만, 차 막히는 걸 유난히 싫어하는 아버지 덕에 늘 새벽 4~5시에 출발한다. 눈도 제대로 뜨지 못한 차에 올라 불편한 잠을 청한다. 해가 떠오르는 아침 7시쯤이면 창밖이 환해진다. 휴게소에서 갓 구운 호두과자를 베어 무니 달콤한 팔알곰에 잠이 달아난다.

"요즘은 내려가는 사람보다 올라오는 사람이 많아졌지"라는 아버지의 말처럼 도로는 한결 여유로워졌다. 고속도로가 확장되고, 명절 이동의 방향도 달라진 것이다. 울산 시내에 도착하자 가장 먼저 알프스시장을 향했다. 고

춧가루가 듬뿍 들어간 붉은 국물의 소고기국 한 그릇을 비우자 '여기가 경상도구나' 하는 실감이 난다.

예전엔 추석 전날 온 가족이 부엌에 모여 송편을 빚고 전을 부쳤지만, 이제는 식당을 운영할 정도로 음식 솜씨가 좋은 큰어머니가 전과 튀김을 해오신다. 송편도 떡집에서 사 온다. 90세가 넘는 조부모님이 예전처럼 움직이기 어려워, 우리 가족이 대신 대청소를 맡았다. 이후 큰어머니의 제안으로 모두 함께 발로 나가 고구마를 캐다. 산모기에 물려 간지러웠지만, '하나만 더' 하며 손을 멈추지 않았다. 흙 묻은 고구마를 들고 웃는 얼굴들에서 오랜만에 명절의 정이 느껴졌다.

추석 당일엔 비가 추적추적 내렸다. 오전 11시, 가족들이 산소에 모였다. 예전에는 세 곳의 집을 차례로 둘러 제사를 지내고 산소를 방문한 뒤 마지막으로 조부모님 댁에 모였지만, 지금은 다르다. 어른들이 하나둘 세상을 떠나고, 코로나 이후로 차례도 간소해졌다. 각자 집에서 따로 지내거나 한 번에 모이는 식이다. 흠어져 있던 산소도 한곳으로 모였고, 제사상에는 고인 분들이 좋아하시던 커피, 케이크, 환타, 담배 같은 것들도 함께 오른다. 기쁘게 인 제사음식 사이로 생전의 취향이 조

용히 자리했다.

차례를 마친 뒤에는 큰어머니의 농장에서 점심을 먹고, 마지막으로 조부모님 댁에 들렀다. 내년부터는 농장식사도 없애고 차례상으로 식사를 대신할 계획이라고 한다. 친척들이 하나둘씩 모이면 어머니를 도와 언니와 내가 송편, 전, 과일, 커피 등을 상에 낸다. 이때면 손님으로 온 여성 친척들도 자연스레 부엌으로 들어가 일손을 돕는다. 반면 남성 친척들은 거실 상에 둘러앉아 대화를 나눈다. 차례가 간소화됐지만, 이런 풍경에서는 여전히 유교적 관습이 남아 있음을 느낀다. 불민스 러우면서, 오랜 세월 이어진 전통이 라 쉽게 바꾸기 어렵다.

얼마 전 결혼해 얼굴 보기 힘든 작은 언니를 오랜만에 만나 반가웠다. 친척들이 하나둘 돌아간 뒤에는 가족끼리 조부모님과 추석을 마무리하는 저녁 식사를 했다. 밤까지 계속 비가 내리올해는 보름달을 보지 못했지만, 아버지와 함께 빗속 마당을 지우며 조용히 명절을 곱씹는다.

연휴 셋째 날 새벽, 다시 서울로 향한다. 울산역에 KTX를 타는 언니를 내려주고 승용차는 북쪽을 향해 달린다. 길은 예전보다 훨씬 짧아졌지만, 명절의 여운만큼은 여전히 길게 남았다.

명절이 비춘 사회적 그림자... 우리가 마주한 변화



▲ 출처: 이마트24

전통적으로 과거 명절은 가족 행사를 넘어 지역 공동체의 활력을 불어넣는 중요한 원동력이었다. 오랜만에 만난 친지들은 서로의 안부를 묻고 소식을 전하며 끈끈한 유대감을 다졌다. 온 가족이 고향에 모이면 인구가 줄어드는 농어촌 지역은 일시적인 활기를 띠며, 지역 경제에 미약하나마 온기를 불어넣었다. 이처럼 고향이라는 물리적인 공간은 가족의 보금자리이자 지역 사회의 한 축으로서 명절의 의미를 더욱 풍성하게 만들었다.

하지만 21세기의 명절 풍경은 과거와 사뭇 다르다. 청년 세대가 명절을 전통적 의례가 아닌 개인의 휴식과 재충전의 시간으로 바라보며 명절 문화의 가치관 변화를 이끌고 있다. 수십년간 지속된 수도권 집중화와 청년층의 이주로 인해 지방의 공동체 기반은 심각하게 쇠퇴했다.

우리 사회가 직면한 거대한 구조적 문제가 그림자처럼 드러났다. 좁은 주거 공간에서 홀로 명절을 보내는 일명 '혼족족'의 증가와 고향에 남아 쓸쓸하게 명절을 맞이하는 이에는 '개인'이 줄기는 '간편식'으로 의미가 변했다고 아쉬움을 토로하는 의견도 있었다.

특히 명절에 잠시 찾아오는 가족이 없어 고통받던 명절을 보내는 가족의 경우, 지방의 인구 소멸과 고령화 문제가 더 이상 먼 미래의 일이아님을 보여주는 아픈 현실이다. 또한, 명절의 변화는 전통적인 공동체 의식의 약화를 보여준다. 과거의 명절은 단순히 직계 가족이 모이는 것을 넘어, 친척이나 이웃까지 아울러 연대 의식을 강화하는 '사회적 접착제' 역할을 했다. 하지

만 개인주의와 핵가족화가 심화하며 명절의 의미는 확장된 공동체의 의무에서 핵가족 내의 개인적 휴식으로 축소됐다.

사람들은 대가족 내의 불편한 관계나 사회적 의무에서 벗어나기 위해 명절의 의미를 점점 축소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필연적으로 공동체의 유대감을 약화하는 결과를 낳는다. 명절 동안 SNS에서 흔히 보이는 '명절 증후군' 해시태그나 '명절 잔소리 회피법' 같은 콘텐츠는, 명절이 더 이상 기쁨이 아닌 회피해야 할 노동과 감정적 부담으로 인식되고 있음을 뚜렷하게 드러낸다.

결국 오늘날의 명절 풍경은 경제 중앙 집중화와 인구 구조의 변화가 만들어낸 사회적 고통을 반영한다. 현대인들이 명절을 개인의 휴식 시간으로 간주하는 것은, 그들이 속한 공동체가 더 이상 안락함이나 지지 기반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는 냉정한 증거기도 하다. 명절은 이 시대의 인구 절벽과 공동체 붕괴를 경고하는 일종의 사회적 지표로서, 우리 사회가 간과해서는 안 될 중요한 가치를 내포하고 있다.

우리는 명절을 둘러싼 다양한 변화와 논쟁을 목격했다. 명절은 더 이상 모두가 같은 장소, 같은 방식으로 의무를 수행하지 않는다. 홀로 떠나는 여행이 되기도 하고, 명절 당일에도 출근하는 청년의 묵묵한 일상이 되기도 하며, 때로는 지친 몸을 위로하는 단순한 휴식으로 존재하기도 한다. 이러한 변화는 각자

의 삶의 방식과 가치관을 존중하는 시대적 진화의 자연스러운 과정인 것이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는 억압적인 전통의 틀을 벗어나, 개인의 행복을 중시하는 사회로 나아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긍정적인 현상이다.

하지만 명절의 형태가 아무리 달라져도, 그 본질적인 의미는 여전히 '사람과 사람'을 잇는

'시간'이라는 가장 근본적인 가치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우리는 명절 연휴라는 핑계를 통해 연락이 뜸했던 이들에게 마음을 전하고, 물리적인 거리를 넘어선 안부를 묻는다. 비록 한자리에 모이지 못하더라도, 가족들이 각자의 공간에서 휴식을 취하더라도, 그 마음속에는 서로의 안녕과 행복을 기원하는 따뜻한 염

원이 담겨 있다. 이처럼 각자의 명절 풍경 속에서도 전국 방방곡곡의 수많은 이들이 같은 날 밤 같은 달을 올려다본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 그 달빛 아래에서 우리는 여전히 연결돼 있다는 보이지 않는 연대감을 느낀다. 명절은 형식이 아닌 마음의 연결이며, 고향집 방문보다 가족

의 안녕이 우선인 시간이다. 궁극적으로 명절의 의미는 '어떻게 보내야 하는가'가 아니라, '무엇을 기억하고 누구를 생각하는가'에 달려 있다. 변화하는 시대 속에서 우리는 이 진정한 가치를 재정의함으로써 모두가 위로받고 공감할 수 있는 새로운 명절의 의미를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기고칼럼

서경대 개교 78주년에 생각하는 ‘학문’, ‘대학’, ‘교수’

이복규 (영어교수/국문학)

우리 대학 개교 78주년이다. 해방 공간기에 개교하여 오늘에 이르기 까지, 많은 인재를 길러내고, 발전을 거듭하고 있는 데에 대해 자축한다. 우리 대학을 졸업해 교수로 있다가 은퇴한 나로서는 더욱 감사한 마음이다. 차체에 ‘학문’, ‘대학’에 대해, 다시 한번 성찰해 본다.

우리가 대학을 정의할 때, 학문의 전당이라고들 한다. ‘학문(學問)’이란 무엇인가? 배우고(學) 묻는(問) 것이다. 배우고 물어야 학문이다. 대학은 그런 곳이고 그래야 한다.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은 기존의 지식을 잘 가르치고 배우는 것이다. 교수가 무엇을 가르치느냐에 따라 학생의 수준이 결정된다. 시대에 뒤떨어지거나 부실한 콘텐츠를 가르치면 학생도 부실해진다. 양질의 콘텐츠를 개발해서 교육하기 위해, 교수자는 끊임없이 공리

해야 하며, 효과적인 교수법이 무엇인지도 고민해야 한다.

요즘처럼 변화의 속도가 빠른 시대에는, 교수의 기존 지식이 더 이상 효용성을 유지하지 못할 수 있다. 졸업 후 사회에 나가 적용하려는 학생들에게, 묵은 지식은 도움을 주지 못한다. 더욱이 SNS와 AI가 보편화하고 있어서, 학생들이 즉석에서 교수의 강의를 맞는지 아닌지 바로 검증할 수 있으니, 긴장하며 준비해야 한다. 언젠가 들은 말이 기억난다. 모 대학에서 북한학을 강의하는 교수가, 평양의 쌀 값이 얼마라고 하자, 수강생 하나가 즉석에서 핸드폰을 꺼내 평양의 지인한테 현재의 시세가 얼마인지 확인하더라는 이야기다.

이렇게 기존의 지식만 잘 가르치고 배우면 ‘학문’인가? 아니다. ‘묻는(問)’ 과정이 있어야 학문이

다. 기존의 이론과 지식을 배우면서, 과연 그게 아직도 타당한지, 이론과 자료 양 측면에서 의심하며 따지는 과정이 있어야 대학의 ‘학문’이다. 초중등교육에서는 답이 이미 정해져 있기 일췌이니 질문을 해도 일정한 범위 안에서만 이루어진다. 그러나 대학은 다르다.

배우고 묻기, 물으며 배우기, 이 두 가지가 상호작용을 해야, 학문이 혁신된다. 대학을 학문의 전당이라고 표현하는 까닭이 이것이다. 독일어로 강의를 ‘Vorlesung’이라고 하는데, ‘앞에서 읽기’라는 뜻이다. 교수가 연구해서 얻은 새로운 이론이나 지식을 적어 가지고 와서, 학생들 앞에서 처음으로 읽어 주면, 학생들이 부지런히 받아 적었다고 한다. 그러나 거기서 머무르지 않고 세미나 시간에 격의 없는 질문과 토론을 했다고 한다. 배우기와 묻기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었다 하겠다. 지금 우리나라 대학 강의는 이른바 암기식 교육 즉 배우기만 강조되어 있어 비교된다.

좋은 교수가 좋은 학생을 만들기 도 하지만, 질문을 잘하는 학생이 능력 있는 교수를 만든다. 내가 현직에 있을 때, 질문하는 학생에게는 가산점을 주기도 했다. 학생들의 탁월한 질문에서, 새로운 논문을 착상하곤 했다.

고등교육기관인 대학 교육의 목적은 좋은 질문을 할 줄 아는 사람을 기르는 데 있는지도 모른다. AI 시대인 지금 더욱 그렇다. 인간만이 철학적, 존재론적, 가치론적인 질문을 할 수 있다고 한다. 질문(의심)할 줄 모르면, 자칫 AI한테 농락 당할 수 있다. 이른바 창의적인 교육, 토론 교육, 인문학 교육의 필요성이 더욱 요청되는 요즘이다. 교

수나 학생이나, AI를 휘어잡을 만한 통찰력을 지녀야, 휘둘리지 않고 조교처럼 부릴 수 있다.

대학에 소속된 교수도 양면성을 지닌다. 연구자이면서 강의자이다. 초중등 교사들에게 연구 의무는 없다. 이미 밝혀진 이론이나 지식을 잘 가르치기만 하면 된다. 고등교육기관인 대학의 교수는 다르다. 기존의 이론이나 지식에 만족하지 않고, 질문(의문)을 제기하여 얻은 새로운(더 나은) 이론과 지식을 학계에 보고해야 한다. 그렇게 해서 얻은 지식을 학생들에게 가르치는 의무가 교수에게 부여되어 있다. 학기마다 담당해야 할 강의 시간도 정해져 있다.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아야 좋은 교수다. 생각해 보니 나도 균형을 잡지 못했다. 연구가 너무 재미있어서 그만 연구에 치중한 점이 반성한다.

| 기자의 눈 |

펜은 폰보다 강하다

2022년 스무 살 봄, 세상이 딱 피어오르던 그때 사범대에 입학한 친구가 어느덧 4학년이 됐다. 그리고 올봄, 친구는 우리의 모교인 J중학교에 선생님이 되어 돌아갔다. 졸업을 앞두고 교생 실습을 다녀온 것이다.

학기 초마다 짧고 강렬한 인상을 남기고 떠났던 교생 선생님이 실은 지금 우리처럼 어슬픈 사회 초년생이었다니, 교복을 입고 함께 깔깔대던 친구가 이제 교단 앞에서 ‘선생님’이라 불린다니, 세월의 흐름이 놀라웠다.

내년 영 어수룩해 보이는 친구가 강단 있는 선생 노릇을 했다는 사실도 신기했지만, 그보다 더 충격적이었던 건 요즘 학생들의 교과서였다. 친구는 종이 교과서보다 스마트 패드를 활용한 전자 교과서 수업이 보편적이라고 했다. 초록 칠판에 흰 분필로 판서하던 시절은 이미 옛이야기였다. 칠판은 스마트 보드로, 분필

은 스마트 펜으로 바뀌어 있었다.

문득 요즘 초등학교의 모습이 궁금해졌다. ‘나 때는’ 큼직한 줄이 쳐진 공책에 매주 월요일 받아쓰기를 했었다. 선생님께서는 “글씨 쓰는 버릇이 나빠진다”며 플래 사프를 쓰던 친구의 필기구를 압수해 가지고 대신 연필을 쥐여주셨었다. 모 르긴 몰라도, 지금의 초등학교는 그 시절보다 훨씬 디지털 친화적일 것이다. 그만큼 연필과 종이 같은 아날로그의 감각과는 멀어졌다는 생각이 들었다.

요즘 세대는 글자를 ‘그린다’고 한다. 모국어가 아닌 글을 처음 배우는 사람들이 그렇듯, 한국인이지만 한글의 획과 형태를 그림처럼 인식하고 그러듯 쓴다는 말이다. 손편지의 낭만이 살아 있던 부모님 세대까지만 해도 ‘글씨를 잘 쓴다’는 건 큰 가산 요소였다. 정성스럽게 쓰인 손글씨에는 문장 너머의 마음이 담겨 있었다. 펜 끝에 묻은 잉크와 함께

전해지는 진심 때문이었을 것이다. 그래서일까, 부모님 세대의 편지를 보면 오늘날에는 느끼기 힘든 깊은 감정과 여운이 깃들여 있다. 시간이 흘러 2010년대에 의무교육을 마친 우리 세대에서는 소위 말하는 ‘어른 글씨체’를 보기 어려워졌다. 이미 그때부터 손글씨의 비중과 중요성은 점차 퇴색되고 있었던 것이다.

그렇다면 손으로 글씨를 쓰는 행위는 지금, 어떤 의미를 가질까. 글은 내용과 어휘뿐 아니라, 종이 에 글자를 새겨 넣는 ‘행위’ 자체에도 가치가 있다. 단순히 보기 좋은 글씨의 차원을 넘어, 글씨에는 한 사람의 성격과 정서가 스민다. 자음과 모음을 쓰는 방식, 자간, 필압, 글씨 크기 등 요소마다 인물의 기운과 됨됨이가 드러난다.

필적학자 구분진 변호사는 머니S와의 인터뷰에서 “대단한 인물은 반드시 필적이 특이하다”고 말했다. 그는 “‘ㅁ’ 자를 쓸 때 오른쪽

아래를 단단히 닫는 것은 융통성이 있으면서도 빈틈없는 성향을 의미한다”고 예시를 들었다. 또 긴 가로 감성과 여운이 깃들여 있다. 시간이 흘러 2010년대에 의무교육을 마친 우리 세대에서는 소위 말하는 ‘어른 글씨체’를 보기 어려워졌다. 이미 그때부터 손글씨의 비중과 중요성은 점차 퇴색되고 있었던 것이다.

그렇다면 손으로 글씨를 쓰는 행위는 지금, 어떤 의미를 가질까. 글은 내용과 어휘뿐 아니라, 종이 에 글자를 새겨 넣는 ‘행위’ 자체에도 가치가 있다. 단순히 보기 좋은 글씨의 차원을 넘어, 글씨에는 한 사람의 성격과 정서가 스민다. 자음과 모음을 쓰는 방식, 자간, 필압, 글씨 크기 등 요소마다 인물의 기운과 됨됨이가 드러난다.

필적학자 구분진 변호사는 머니S와의 인터뷰에서 “대단한 인물은 반드시 필적이 특이하다”고 말했다. 그는 “‘ㅁ’ 자를 쓸 때 오른쪽

아래를 단단히 닫는 것은 융통성이 있으면서도 빈틈없는 성향을 의미한다”고 예시를 들었다. 또 긴 가로 감성과 여운이 깃들여 있다. 시간이 흘러 2010년대에 의무교육을 마친 우리 세대에서는 소위 말하는 ‘어른 글씨체’를 보기 어려워졌다. 이미 그때부터 손글씨의 비중과 중요성은 점차 퇴색되고 있었던 것이다.

글로 감정을 정리하고 표현하는 데 서툴러졌다. 2015년 국제신문 보도에서 동아대 국어문화원 소속 연구원은 “학생 중에는 글로 생각을 정리해 전달하는 데 익숙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며, “이것이 표현력뿐 아니라 소통의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미지가 중심이 되는 디지털 시대에도 글의 힘은 여전히 강하다. 글을 잘 쓰고 싶다는 사람들의 욕망도 여전히 있다. 하지만 ‘무엇을 쓰는가’ 만큼 중요한 건 ‘어떻게 쓰는가’다. 문단이 글의 뼈대고, 문장과 그 속의 어휘가 근육과 살집을 이룬다면, 글씨는 손끝으로 흘러나온 글씨의 영혼 그 자체다.

그래서 나는 오늘도 잠시 화면을 덮고, 공책 위에 마음을 눌러 적어 본다.

김경민 객원기자

(anna2467@skuniv.ac.kr)

| 기자의 눈 |

한일, 손을 맞잡고 즐긴 하루

지난 10월 12일, 서울 코엑스 B홀에선 아침부터 축제의 열기로 가득했다. 올해로 20주년을 맞이한 ‘한일축제한미당’은 2005년 한일 국교 정상화 40주년을 기념한 ‘한일 우정의 해’를 계기로 시작된 양국 최대 규모의 민간교류 행사다. 외교부와 문화체육관광부, 서울특별시, 주한일본대사관 등이 후원하며, 양국의 수많은 시민이 방문하는 자리다. 올해의 테마는 ‘두 손을 맞잡고, 더 나은 미래로’였다.

이날은 네 개의 세션으로 나누어 진행됐다. 한일소년소녀합창단과 전통 예능, 현대무용, 코스프레,

K-POP과 J-POP까지 다채로운 공연이 이어졌다. 특히 가야금과 고도의 만남, 한일 서예 퍼포먼스, 한일 홀라댄스 등은 눈과 귀가 모두 즐거운 순간이었다. 또한 기업 부스, 지자체 부스, 체험·이벤트 부스, 운영 부스, 푸드 부스 등 다양한 공간이 마련돼 참가자들이 보고 즐기고 체험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필자는 작년부터 자원봉사자로 이 축제에 참여하고 있다. SNS 홍보팀(사진 촬영) 소속으로 행사장 곳곳에서 촬영하다 보면, 자연스레 들뜬 관객들의 표정과 무대 위 긴장된 순간까지 눈에 들어온다.

그중 가장 마음을 사로잡은 건

코스프레 공연이었다. 작년에 처음 제대로 된 코스플레이어를 보고 놀랐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다. 올해도 카메라를 들고 관찰하며, 그들의 열정과 몰입에 감탄했다. 사진 촬영을 부탁하면 자연스럽게 캐릭터에 몰입해 포즈를 취하고, 관객을 향해 미소를 지었다. 단순한 취미를 넘어 하나의 예술, 그리고 서로를 즐겁게 만드는 교감이라는 걸 느낄 수 있었다.

무대 밖에서도 흥미로운 풍경이 펼쳐졌다. 일본인 관객들이 한국 전통 공연을 보며 박수를 보내고, 한국인들은 일본 전통 무용을 감상했다. 언어가 달라도, 서로의 눈빛과

박수, 미소로 마음을 주고받는 순간이었다. 한국과 일본은 늘 경쟁과 갈등 속에 놓여 있는 관계지만, 이렇게 한 공간에서 서로의 문화를 즐기는 모습을 보면 ‘가깝고도 먼 나라’라는 말이 실감난다.

한일전이라는 이름 아래, 양국은 때로 SNS에서 경쟁하며 조풍을 주고받기도 하지만, 가장 가까운 일상에서는 서로의 음식, 음악, 패션 등을 자연스럽게 공유한다. 이번 축제에서 느낀 건 바로 그 일상의 교류다. 한일 양국이 서로의 문화에 진심으로 관심을 두고 즐기는 모습은 정치적 갈등을 잠시 뒤로 미루고, 사람과 사람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희망을 보여준다.

한국인이자 일어 전공자, 축제 참여자이자 이를 제삼자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기자로서, 필자는 한일 양국 문화를 열린 마음으로 바라보려는 시선을 잃지 않으려 노력한다. 무대 위 공연, 관객들의 응원과 박수, 정성스러운 코스프레까지, 모든 순간에서 서로를 존중하고 즐기는 마음이 느껴졌다. 앞으로도 이 축제가 한국과 일본을 잇는 다리로써, 서로의 문화를 가까이에서 체험하고 즐길 수 있는 장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

김나연 기자

(nykim0130@skuniv.ac.kr)

| 수습의 눈 |

무기력함을 이겨내는 색다른 방법

가끔, 어쩌면 자주 찾아오는 무기력함은 어느새 우리의 단골손님이 됐다.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는 무기력함은 우리의 하루를 허무하게 날려버리고선 하루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 자신을 질책하게 만든다. 이런 날들이 반복되면 자책은 자포감으로 변하고, 이내 스트레스에 시달리게 된다. 특히 무기력함은 필요 이상으로 끌어올려진 감정이나 부정적인 생각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기에, 격해진 감정 속에서 우리는 스트레스를 평소보다 더 크게 받아들이게 된다. 이때 무기력함을 빨리 털어내지 못한다면, 우리는 또다시 하루를 무기력함에 잠식된 채 증발

시킬지도 모른다.

그렇다면 이러한 무기력함을 이겨내는 방법으로는 무엇이 있을까? 사람들은 무기력함을 이겨내는 각자만의 방법을 가지고 있다. 사람마다 무기력함을 이겨내는 방법은 다양하지만, 많은 사람이 공통으로 추천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다. 첫 번째는 쉽고 간단한 목표를 세우는 것이다. 달성하기까지 시간이 많이 들고 어려운 목표보다, 빠르고 쉽게 달성할 수 있는 목표를 세워 성취감을 느끼는 것이다. 쌓여 있는 택배 상자 정리나 간단한 방 청소 등을 하는 것처럼 말이다. 두 번째는 가벼운 산책을 하는 것이다.

산책은 몸의 정체 상태를 깨워 에너지를 끌어올리고 머릿속의 잡생각을 지워 기분을 나아지게 한다. 산책을 통해 몸의 긴장을 풀어주면 스트레스가 줄어드는 효과도 있다.

최근 소셜미디어에는 무기력함을 이겨낼 수 있는 위도 두 가지 방법이 합친 색다른 챌린지가 유행하고 있다. 바로 ‘컬러워크 챌린지’다. 컬러워크 챌린지는 끌리는 색상을 하나 정하고, 가벼운 산책을 하면서 자신이 정한 색상의 물건이나 자연물을 촬영해 색상이 담긴 사진을 올리거나 공유하는 것이다. 이처럼 가벼운 청소 등을 하는 것처럼 말이다. 두 번째는 가벼운 산책을 하는 것이다.

있는 활동이기에 무기력함의 극복에 최적화된 활동이다.

필자도 무기력함이 찾아오거나 잠 생각이 많아질 때 컬러워크 챌린지를 애용한다. 처음 컬러워크 챌린지를 시도했을 때는 색상을 찾는 게 어려워 마음이 더 복잡해지는 것이 아닐까 하는 걱정이 있었다. 하지만 동네를 돌아다니며 간판, 담벼락, 건물 등을 유심히 보다 보면 주변 풍경의 색상이 몰두해 잡생각들을 잊어버리게 된다. 그리고 어느 순간 편안한 마음으로 걷고 있는 자신을 마주하게 된다. 컬러워크 챌린지는 쉬운 활동으로 목표를 달성했다는 성취감을 제공해 무기력함에

서 빠르게 해방시켜 준다. 그리고 내가 해야 하는 일들로 나아갈 수 있는 좋은 발판이 돼 준다.

무기력함은 누구에게나 찾아온다. 그러나 그 안에서 머무르지, 얼른 털어내고 일어날지는 개인의 선택에 달려있다. 무기력함을 이겨내는 건 거창한 목표와 변화가 아니라 사소하고 간단한, 빠르게 실행할 수 있는 목표와 변화이다. 만약, 아직 무기력함을 이겨낼 자신만의 방법을 찾지 못했다면, 오늘 하루 컬러워크 챌린지에 도전해 보는 것은 어떨까.

김서연 수습기자

(kimsy050317@skuniv.ac.kr)

만/파/식/적

삶을 기억하는 방법

얼마 전, 기자는 영월 여행을 떠났다. 우연히 캐나다 여행을 갔을 때 입었던 옷과 뿌렸던 향수를 쓰고, 녹음이 우거진 비슷한 풍경을 보고 있자니 그때의 기억이 새록새록 올라왔다. 이때 어떤 인터뷰가 불현듯 생각났다.

배우 정유미는 한 잡지와와의 인터뷰에서 해외여행을 가면 여행지에 도착한 첫날 꼭 향수를 하나씩 산다고 밝혔다. 그녀는 “여행 내내 그곳에서 산 향수만 뿌린다”며 “나중에 시간이 지난 후 그곳에서 뿌린 향수 냄새를 맡으면 저절로 여행지에서의 추억이 떠오른다”고 말했다. 이어 “그때 뿌린 향수로 인해 여행의 기억들이 저절로 떠오르니까 저에게 향수는 ‘기억’인 것 같다”고 했다.

이러한 감각과 기억의 연동은 냄새를 통해 과거의 일이 떠오르게 되는 현상인 ‘프루스트 효과’라 불린다. 프랑스 작가 마르셀 프루스트의 대하소설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속 주인공이 홍차에 적신 마들렌의 향을 맡고 어린 시절을 회상하는 장면에서 이름이 유래됐다.

향으로 기억되는 추억이러니, 얼마나 낭만적인가? 이는 비단 향에만 국한되는 얘기가 아니다. 소리, 특히 음악도 기억과 특별한 관계를 가진다. 까맣게 잊고 있던 기억도 그 당시에 들었던 선율이 귀를 스치면 ‘어? 이거 그때 들었던 건데?’ 하며 기억 속 저편에서 다시 떠오른다.

반대로, 음악이 기억을 불러오지 않고 시각적 자극이 그때 들었던 음악을 떠올리게 하기도 한다. 푸르른 자연을 보면 예전에 그 풍경을 생각하며 들었던 음악이 생각나고, 천문대에서 별을 보고 있으면 밤하늘의 별을 떠올리며 들었던 음악이 머릿속에서 자동으로 재생된다. 음악으로 인해 풍경이나 상황이 떠오르기도 하고, 풍경이나 상황 때문에 음악이 생각나기도 하는 것이다.

삶은 감각의 연속이며, 그 조각들의 결과로 이뤄져 있다. 우리는 가장 어렵게 적어도 가장 먼저 감각으로 탐색을 시작한다. 감각이 예민한 사람들은 과민을 피곤해하기도 하지만, 어쩌면 그것은 세상을 더 풍부하게 살아가는 하나의 방식일지도 모른다. 다른 사람들은 잘 몰라 쉽게 지나치는 향, 빛의 결, 바람의 온도까지 기민하게 느낄 수 있다면 그 자체로 삶은 훨씬 다채로워진다. 더 많은 것을 경험할 수도 있다는 말이다. 결국 우리가 기억하는 모든 순간은 감각으로 새겨진 흔적들이다.

시간이 지나 기억이 희미해져도 한 줄기의 향기, 한 소절의 노래, 스쳐 지나가는 풍경 하나가 언제든 우리를 과거로 데려가 줄 것이다. 우리의 지나간 삶은 감각이란 다리로 연결되며, 인생은 감각의 집합체기 때문이다. 그렇게 우리의 삶은 오늘도 감각 위에 쌓이고 있다.

김나연 기자 (nykim0409@skuniv.ac.kr)

사설

청춘의 리듬, 다시 캠퍼스 위로

며칠 전, 우연히 1988년 MBC 대학가요제 영상을 봤다. 무대에 오른 밴드 ‘신해철과 무한궤도’가 부른 〈그대에게〉는 첫 전주의 신디사이저 소리만으로도 가슴을 두드렸다. 신파 가득한 노래들 사이에서 유난히 빛났던 그 곡은 청춘의 열정과 자유를 그대로 담고 있었다. 단순히 옛 노래를 들은 감상이 아니라, 그 시절 대학생들이 음악으로 세상과 맞서던 마음이 전해지는 순간이었다. 그들은 ‘그대에게’라는 외침 속에서 각자의 꿈을 향한 진심을 노래했다.

그때의 대학은 열정이 숨 쉬던 공간이었다. 캠퍼스는 토론과 공연, 노래와 웃음으로 가득했고, 청춘의 고민이 곧 시대의 언어였다. 대학가요제는 그 시절의 상징이었다. 누군가는 무대에서 노래로, 또 누군가는 강의실에서 목소리로 세상에 자신을 증명했다. 그들은 사회의 흐름에 휩쓸리보다 자신이 세우고 믿는 방향을 향해 나아갔다. 〈그대에게〉의 전주처럼, 그들의 삶에는 두려움보다 설렘이, 무력함보다 용기가 있었다. 그 노래는 단순한 경쟁의 결과물이 아니라 청춘의 ‘존재 선언’이었다.

하지만 오늘의 대학은 어떻게. 경쟁과 불안, 스펙의 압박 속에서 우리는 너무 일찍 어른이 됐다. 강의실의 열정 대신 취업 준비의 한숨이, 축제의 노랫소리 대신 스펙 세미나의 안내 방송이 울린다. 청춘이라 부르기엔 박탈 만큼 현실은 무겁다. 물론 시대가 변했고, 우리가 마주한 문제는 단순한 낭만으로 해결되지 않는다. 그러나 여전히 대학은 ‘배움’의 공간이자 ‘사람’의 공간이어야 한다. 웃음과 열정이 사라진 대학은 더 이상 대학이라 부를 수 없다.

이런 흐름 속에서 과거의 노래는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진다. 우리는 언제부터 웃음을 잃었는가, 그리고 무엇을 위해 달리고 있는가. 〈그대에게〉의 전주는 단순한 음악적 향수가 아니다. 그것은 지금의 대학생들에게 다시금 “너의 목소리를 내라”는 메시지를 전한다. 청춘의 리듬이란 결국 자기 자신을 믿고 세상에 나아가려는 용기의 다른 이름이다. 세대가 달라져도, 그 용기의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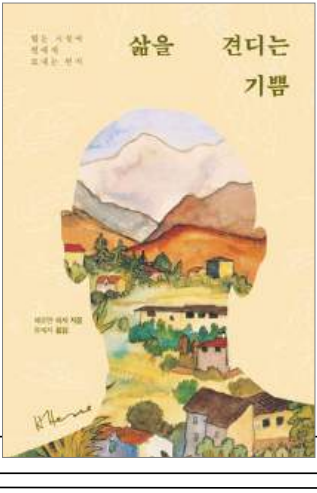
우리대학 역시 그 리듬을 잃지 말아야 한다. 동아리와 축제, 신문과 토론회 같은 교내 활동은 여전히 학생들의 에너지를 비추는 무대다. 학업과 진로의 고민 속에서도 우리가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고 웃을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오늘의 ‘그대에게’일 것이다. 대학이 청춘의 무대를 포기하지 않을 때, 진정한 변화도 그곳에서 시작된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새로운 열정의 불씨를 다시 피워내는 일이다. 이제 필요한 건 거창한 이상이 아니다. 잠시 멈춰 서서 친구의 웃음을 듣고, 자신이 좋아하는 노래 한 곡을 다시 들어보는 여유다. 과거의 청춘들이 그랬듯, 오늘의 대학생들도 다시 웃고, 다시 노래해야 한다. 그때 1988년의 전주처럼, 우리 캠퍼스에도 다시 청춘의 리듬이 울려 퍼질 것이다.

윤정현 기자 (stark1017@skuniv.ac.kr)

1. 전자의적 변화를 가할 수 있는 악기

오늘의 책

행복은 고통을 안고 갔을 때 얻는 씨앗 - **삶을 견디는 기쁨** 헤르만 헤세



▲ 출처 : 교보문고

다들 삶의 목표가 무엇인가? 명예, 부, 사랑... 수많은 키워드가 있지만, 하나로 정의하기란 쉽지 않다. "삶은 고통이다"란 불교의 가르침처럼, 우리는 살아있는 한 고통 속에서 완전한 평안과 함께 걸을 수 없는 존재이다. 그러나 헤르만 헤세는 그 고통의 길 끝에 역설적으로 "삶을 견디는 기쁨"을 발견한다 말한다. 헤세의 '삶을 견디는 기쁨'은 그가 생애

동안 쓴 단상과 명상문을 엮은 수필집이다. 고통, 자연, 예술, 인간의 내면 그리고 삶의 고통과 화해가 이 책에 오롯이 담겨있다. 단순히 아픔을 잊는 법이 아닌, 아픔을 겪어내고 살아내는 법을 가르쳐 주기 때문에 깊은 울림을 준다.

그의 수필 '외로운 밤'은 현대인에게 깊은 공감을 끌어낸다. 헤세는 불면의 시간을 '그저 버리는 시간'이 아닌, 삶에 대해 가장 가까이서 성찰할 수 있는 '각각이 유일하게 깨어있는 귀중한 시간'이라 역설한다. 우리는 일상 속에서 남의 기대와 빠르게 변하는 세상에 떠밀리며 살아가느라 정작 자신을 깊이 돌아볼 틈이 없다.

하지만 고통한 밤이 찾아오면, 과거의 회회와 미래에 대한 걱정이 몽글몽글 피어난다. 하지만 헤세는 이 밤의 고통이 피해야 할 감정이 아닌 "자기 자신과 마주해야 할 줄 아는 시간"으로 정의한다. 그는 사랑하는 사람을 잃거나 세상과 단절된 순간에 찾아오는 고통을 "달콤함을 담은 참된 자유 시간"이라고 부른다. 매일 밤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고통의 시간이야말로 외부가 아닌 내면의 행복을 길러내는 데 집중할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이다.

그에게 행복이란 '근심 없는 상태'가 아니다. 오히려 "진짜 행복은 근심과 고통을 포용하는 데에서 온다"고 단언한다. 인간은 고통이 없으면 성장하지 못하며, 상처를 통해 타인의 고통을 진정으로 이해할 수 있는 공감 능력을 배우게 된다.

"행복하려 애쓰지 않아도 된다." 행복은 외부에서 주어지는 우연한 보상이 아니라, 고통과 고통을 견디며 스스로를 단단히 세워가는 내면의 힘에서 비롯된다. 우리의 삶을 부정하거나 후회하는 어둠 속에서조차, 헤세의 글은 "그래도 우리는 우리 앞으로 다가갈 것들이 또다시 호기심을 갖기 시작하고 운명을 사랑하게 된다"는 희망을 발견하게 한다.

삶을 견뎌오며 얻는 강인함과 성숙, 그것이 바로 헤르만 헤세가 발견한 '삶을 견디는 기쁨'의 진정한 의미일 것이다. 이 책은 힘든 시절을 보내는 모든 이들에게 밤을 비추는 등대처럼, 근원적인 용기와 위로를 건네줄 것이다.

오연우 수습기자 (pink3728@skuniv.ac.kr)

오늘의 전시회

내가 사랑한 풍경들 - **알렉스 키토 사진전**



켄자스 시티 기반의 사진작가 알렉스 키토는 도시의 활기찬 거리부터 고요한 자연 풍경까지, 세계 곳곳의 순간을 생생한 색감과 감성적인 시선으로 포착한다. 특히 그의 작품들은 미묘한 분위기와 색의 조화를 통해 평화와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것으로 유명하다.

전시 공간은 작가를 움직인 네 가지 영감에 맞춰 네 챕터로 구성됐다. 첫 챕터인 '콜로라도의 세계'는 작가가 처음 사진가로서의 길을 시작한 곳인 콜로라도의 풍경을 담았다. 그가 가족과 수많은 휴가를 보내고, 처음 필름 사진을 찍은 콜로라도는 계절마다 색다른 얼굴을 보여준다는 것을 작품을 통해 보여준다.

두 번째 구역인 '고요한 빛의 축제'는 사진 뒤에 빛나는 판을 덧대 빛이 극적으로 바뀌는 하늘의 풍경을 더 잘 느낄 수 있게 했다. 이 챕터의 사진들은 작가가 사진 찍기 가장 좋아하는 순간인 일출의 파스텔톤 새벽하늘과 일몰의 붉은 노을이 지는 순간들이 담겨 있다.

세 번째 '세상에 없는 곳'에서는 작가가 직접 촬영한 사진을 오리고 붙인 '디지털 콜라주' 기법으로 완성한 작품들을 관람할 수 있다. 현실에 있을 것만 같으면서도 존재하지 않는 사진 속 풍경은 보는 이들에게 오묘한 감정이 들게 만든다. 그는 이런 상상 속에서만 존재하는 새로운 풍경을 만들기 시작한 이유로 "독특함을 지닌 아티스트가 되기 위해 자유롭게 창작하는 실험적 작업이 필요하다고 느꼈다"고 밝혔다.

마지막 챕터인 '삶의 작은 순간들'에는 작가가 37개국을 여행하며 우연히 발견한 풍경들이 가득하다. 사람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자신만의 감성과 흥미만으로 포착

한 각각의 순간들이 전시돼 있다. 모든 작품 중간중간에 적혀 있는 작가가 사진을 찍으며 겪었던 일이나 느꼈던 감정, 생각 등을 보는 것도 또 하나의 재미다.

작가는 전시장에 상영되는 영상에서 "이 모든 장면들이 멈추고 감성할 마음만 있다면 누구에게나 열려 있다는 사실에 놀랐단다"고 말한다. 그는 "무심코 지나치는 일상에는 잠시 멈춰서기만 하면 발견할 수 있는 아름다움이 가득하다"며 "세계 곳곳의 아름다운 자연, 때로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아름다움을 사진으로 담아 사람들에게 마음의 평화를 전하고 싶다"고 밝혔다. 이런 마음이 작품에 나타나는 것일까? 작가의 사진은 보고 있으면 하나같이 마음이 고요해지는 느낌이다. 다들 환상적인 자연의 모습에 퐁퐁 빠지고 싶다면 [알렉스 키토 사진전]으로 떠나보는 건 어떨까?

김나연 기자 (nykim0409@skuniv.ac.kr)

· 전시기간 : 2025.05.23(금) ~ 2025.11.23(일)
· 전시장소 : 서울특별시 광진구 아차산로 402 이스트폴 2F 그라운드스 이스트
· 관람시간 : 10:00 ~ 19:00 · 관람비용 : 성인 12,000원

오늘의 장소

가을비와 함께 떠나는 능으로의 여행 - **태릉과 강릉**



▲ 출처 : 궁능유적본부

서울시 노원구에 있는 경춘선 숲길을 따라 별내 방면으로 걷다 보면 태릉선수촌 옆 태릉이 위치해 있다. 태릉은 단릉으로 조선 11대 왕 중종의 세 번째 왕비 문정왕후 윤씨의 능이다. 태릉에서 1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에는 강릉이 있다. 강릉은 쌍릉으로 조선 13대 왕 명종과 인순왕후 심씨의 능이다.

태릉과 강릉에는 재밌는 이야기들이 얹혀있다. 선조실록에 의하면 1592년 임진왜

란 때 선릉·정릉과 마찬가지로 태릉과 강릉도 왜적들의 도굴 시도가 있었으나 실패했다. 이러한 역사적 배경 덕분에 태릉과 강릉은 왕릉이 500여 년가량 손상 없이 보존되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곳이다.

태릉에 입장하면 가장 먼저 신성한 영역임을 상징하는 홍살문이 방문자를 반긴다. 홍살문을 지나면 능까지 이어지는 돌길이 놓여있다. 왼쪽 높은 길은 제사 시 향과 축문을 들고 가는 '향로'이고 오른쪽 낮은 길은 임금이 걷던 '어로'라고 한다. 강릉에 도착하면 부부의 능이 나란히 배치돼 있다. 죽어서도 함께라는 말이 저절로 생각나는 광경이다.

태릉과 강릉은 1년에 단 두 번만 열리는 태릉-강릉 숲길로 연결돼 있다. 10월에는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11월에는 오

전 9시부터 오후 4시 반까지 개방한다. 개방 시기를 조절해 자연의 모습을 그대로 보존한 숲길은 정말 운치 있고 아름답다.

가는 방법은 다양하지만, 대중교통을 이용한다면 지하철을 타고 태릉입구역 7번 출구에서 내려 버스를 타고 태릉은 태릉 정류장에서 강릉은 삼육대 앞 정류장에서 내리면 된다. 자가용을 이용한다면 태릉과 강릉의 무료 주차장을 이용하자.

가을 나들이로 태릉과 강릉을 방문해 보는 것도 좋을 듯하다. 연인이나 친구들과 함께 가을바람을 맞으며 즐겨주는 능의 세계로 떠나보자. 분명 후회하지 않을 것이다.

유승윤 수습기자 (organiceggfry@skuniv.ac.kr)

· 주 소 : 서울특별시 노원구 화랑로 681
· 운영시간 : 09:00~18:00(입장 마감 17:00), 월요일 휴장
· 관람비용 : 만 24세 이하 및 만 65세 이상 무료, 그 외 1,000원 (노원구 지역 주민 신분증 제시 시 50% 할인)

오늘의 영화

가장의 처절한 구직 싸움 - **어쩔수가 없다 (2025)**



▲ 출처 : 네이버영화

25년 경력 제지 전문가 '만수'는 아내 '미리'와 두 자녀, 그리고 반려견을 둔 남부럽지 않은 가정을 이룬 성공한 가정이다. 평소처럼 가족과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지만, 만수는 돌연 해고 통보를 받는다.

석 달 안에 취업하겠다는 포부와 달리 현실은 뜻대로 흘러가지 않았다. 만수는 일년간 마트에서 일하며 면접장을 전전했다. 생각보다 길어진 공백으로 퇴직금을 다 사용해야 마땅한 집마저 내놔야 할 처지에 몰린다. 급기야 제지 회사인 '문 제지'에 무작정 찾아가 이력서를 내민다. 하지만 회사의 반장인 '선출' 앞에서 굴욕을 당한다. 문 제지의 자리가 본인에게 제격이라고 확신한 만수는 결심한다. '나를 위한 자리가 없다면, 내가 만들어서라도 취업에 성공하겠다.'

영화 초반 만수는 동정심이 많은 인물이었다. 하지만 해고 이후 시련을 겪고, 가장으로서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절망적인 상황 속 결국 언젠가 선택을 하게 된다. 그는 경쟁 상대들을 살해해 제거하기로 결심한다. 경쟁 상대를 제거하는 과정을 겪으며 자신을 억누르던 욕망으로부터 해방되고 그의 예전 모습은 찾아볼 수 없게 된다. 만수뿐만 아니라 가족 구성원들 또한 시간이 지나며 변화한다. 그 모습을 지켜보는 것 또한 영화를 감상하는 하나의 포인트다.

영화 내용이 어둡지만은 않다. 경쟁 상대를 죽이기 위한 잔인한 상황에서 가수 조용필의 '고추잠자리' 노래가 나오며 대화

가 노래에 묻혀 자막으로만 전달되는 장면 등, 아이러니한 웃음을 선사한다. 어려워진 형편으로 반려견을 떠나보내는 모습에서 기업의 정리해고를 비유적으로 들어내며, 나무를 헤치는 제지 회사에서 일하지만, 집에 있는 식물을 아끼며 기르는 만수의 모순적인 모습을 통해 블랙코미디의 정수를 보여준다.

《어쩔수가 없다》는 〈공동경비구역 JSA〉, 〈아가씨〉, 〈헤어질 결심〉을 제작한 박찬욱 감독의 12번째 장편영화다. 그가 제작한 영화는 다채롭고 파격적인 미장센이 주목받으며, 관객으로 하여금 시각적 쾌감을 선사한다. 《어쩔수가 없다》에서도 그의 미장센을 볼 수 있었다.

하지만 영화가 개봉한 뒤 관객들의 평가는 엇갈린다. 개연성이 부족하다는 혹평을 받기도 하는 한편, 한국 사회에 무거운 주제를 코믹하게 잘 표현했다는 호평 또한 있다.

박찬욱 감독의 다채로운 미장센과 블랙 코미디를 보고 싶다면 이번 주말 극장에서 보길 권해본다.

이요한 수습기자 (yohan2006lee@skuniv.ac.kr)

오늘의 음악

바람이 데려다주는 깊은 사색의 시간

선선한 바람이 불어와 마음을 간질이고, 낙엽 지는 소리마저 음악이 되는 가을이다. 한낮의 햇살은 여전히 따뜻하지만, 그 속에는 묘한 쓸쓸함이 스며 있다. 유난히 생각이 많아지는 계절에, 우리는 문득 발걸음을 늦추고 지난날을 떠올리곤 한다. 복잡한 마음을 환기해 줄 세 곡을 준비했다. 생각을 비우고 스스로에게 귀 기울이며 잠시 깊은 사색을 경험해 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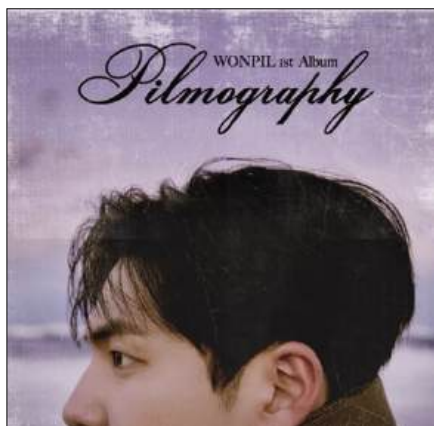


▲ 출처 : 애플뮤직

♪ 〈Rainbow〉 - NCT DREAM

"수없이 다시 시작될
조금은 낯선 내일도
괜찮을 것 같아 눈부실 것 같아
너와 내 맘을 이어주는 Rainbow"

이 곡은 힘든 시간을 지나온 청춘들이 앞으로 함께 써 내려갈 다음 페이지에 대한 긍정적 시선을 담고 있다.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떨쳐내고 미지의 미래가 가져다줄 새로운 가능성과 설렘을 노래한다. 'Rainbow'라는 제목처럼 무지개가 비추는 밝은 빛과 희망을 통해, 막연한 앞날 속에서도 스스로 채워나갈 미래의 다채로운 기대를 풀어내는 곡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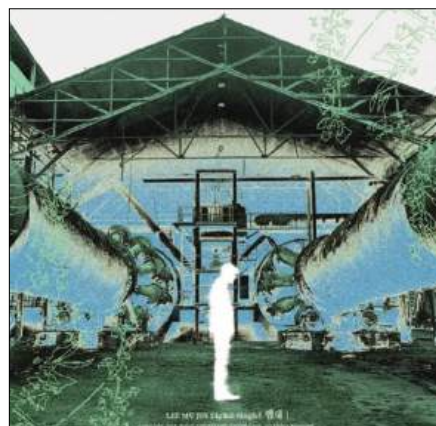
▲ 출처 : 애플뮤직

♪ 〈외판 섬의 외톨이〉 - 원필

"사방이 끝없는 바다인 섬에
남겨진 채 발버둥을 쳐왔어요
포기하고 싶다는 맘을 삭히며
어떻게든 살아가고 있었죠"

발버둥을 치면서도 포기를 떠올리는, 모순적인 청춘의 감정을 솔직하게 담아낸 가사다. '포기하고 싶다는 마음을 삭히며 하루하루를 버텨내는 청춘의 불안이 생생하게 녹아 있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이들의 공감을 불러일으킨다. 이 곡은 외롭지만 치열한 순간을 견디고 있는 모든 이들에게 담백한 위로를 건넨다.

송재이 수습기자 (winsong83@skuniv.ac.kr)



▲ 출처 : 애플뮤직

♪ 〈뺨셋〉 - 이무진

"혼자가 될 걸 알고도
모든 걸 놓아보려 해
이대로 끝나버린대도 괜찮아
모두 날 떠나버린대도 괜찮아"

숨 가쁘게 달려온 삶 속에서, 때로는 잠시 멈춰 서서 모든 것을 놓아버려도 괜찮다고 스스로에게 담담히 고백할 용기가 필요한 순간이 있다. 이 곡은 혼자만의 시간을 통해 쌓여온 마음의 무게를 차분히 풀었다. 빠르게 흘러가는 시간의 흐름에 휩쓸리지 않고 멈춰 서서 비로소 진정한 나를 마주할 수 있는 단단한 용기를 전하는 곡이다.

오늘의 스포츠

전통의 힘, 세계 무대에 우뚝 서다_ 워싱턴 D.C.서 첫 선 보인 한국 전통 씨름

한국 고유의 씨름이 추석을 맞아 미국 워싱턴 D.C.에서 대외 무대로 당당히 나섰다. 대한씨름협회는 10월 4일 현지에서 열린 「2025 추석맞이 문화행(Chuseok Family Festival)」에 씨름 시범단을 파견해 한국 전통 씨름의 매력을 알리는 데 성공했다. 이 행사는 주워싱턴한국문화원과 스미스소니언 국립아시아예술박물관이 공동 주최했으며, 약 6,000명의 관객이 현장을 찾았다(출처: 뉴시스).

씨름은 한국의 대표적 전통 격투 스포츠로, 두 선수가 살바(허리띠)를 잡고 다양한 기술로 상대를 넘어뜨리는 경기다. 힘뿐 아니라 균형 감각, 기술의 정교함, 순발력이 중요한 요소다.

역사적으로 씨름은 농경 사회에서 힘과 체력을 겨루는 민속 경기로 시작됐고, 조선 시대 이후 왕실 행사나 마을 대회에도 자주 등장했다. 근대 들어서는 경기 방식이 정형화되었고, 공식 대회가 조직되면서 스포츠화됐다.

씨름의 매력은 '목숨 건 대결'이 아닌 '정중한 대결'에 있다. 상대를 함부로 잡거나 넘어뜨리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중심을 잃고 기술을 구사하며 균형을 흐드는 순간에 승패가 갈린다. 또한, 경기 도중 손을 놓지 않고 다시 자세를 잡는 유연한 기술도 종종 등장한다.

현지 시간으로 4일 열린 행사에서는 씨름 시범 공연을 중심으로 체험 프로그램이 병행됐다. 발다리, 엉덩배지기 등 기본 기술을 관람객이 직접 배워보는 워크숍이 마련됐고, 어린이와 가족 단위 방문객들이 선수들과 함께 경기에 참여하기도 했다. 시범공연은 씨름의 역동성과 전통의 아

름다운 돌보이게 연출됐다. 또한 씨름 역사 사진전, 홍보 영상 상영, 장사카운과 황소 트로피 전시 등이 함께 진행돼 문화적 깊이를 더했다.

현지 참여자의 반응도 뜨거웠다. 미국 워싱턴 거주자인 에런 양은 "씨름의 역사와 살바의 전통적 의미를 배우는 과정이 흥미로웠다"고 소감을 전했고, 외국인 관람객들은 "낯설지만 매력적이다", "한 번도 본 적 없는 스포츠를 직접 해보니 새로웠다"고 평가했다(출처: 뉴시스).

한국 전통문화와 스포츠가 어우러진 이번 무대는, 미국 내 한인사회뿐 아니라 현지인들과의 문화 가교 역할을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번 행사는 씨름이 국경을 넘어 확장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준 사례다. 문화 스포츠의 융합이라는 측면에서, 전통 스포츠가 세계 무대에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는 희망도 엿볼 수 있다.

하지만 과제도 많다. 상대적으로 규칙이 생소한 씨름을 외국인에게 쉽게 전달하기 위해서는 쉬운 설명, 체험 프로그램, 시범 영상 등이 필수적이다. 또한, 해외 보급을 위한 인프라 구축과 지속적 교류 노력도 병행해야 한다. 대한씨름협회도 앞으로 미국 내 씨름 보급 및 문화 교류를 확대할 계획임을 밝혔다.

전통 스포츠는 단순한 과거의 유물이 아니다. 전통은 시대 속에서 재해석되고 살아 움직여야 의미가 있다. 씨름이 워싱턴 D.C. 무대에 올랐다는 사실 자체가, 우리의 전통이 외국에서도 통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준다. 그 가능성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선 우리



▲ 출처 : 대한씨름협회

학생들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 스포츠 문화 면만이 아니라 캠퍼스 내 동아리, 문화센터, 교양 수업 등에서 전통 운동을 접할 기회가 마련된다면, 씨름은 그 자체로 살아 숨쉬는 스포츠가 될 수 있다.

이번 미국 무대는 씨름이 전통의 울타리를 넘어 세계와 만날 수 있음을 보여줬다. 전통 스포츠가 세계 시민과 소통하고, 한국 문화의 다양성과 힘을 전하는 또 하나의 매개가 되길 기대한다.

윤정현 기자 (stark1017@skuniv.ac.kr)